

애기

www.airforc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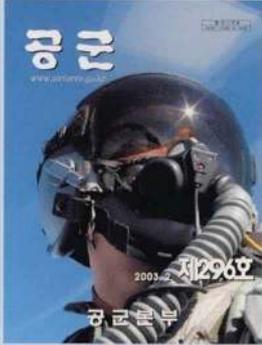


2003. 2

제296호

공군본부

2003. 2. 제296호 목차



특집/공군이 변한다!

지휘봉	4
공군개혁의 필연성과 당위성	11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군의 모습을 기대한다	13
공군에 불고 있는 변화와 개혁의 바람	15

최고를 향하여	국내 첫 헬기 CBT 개발 : 6전대	18
현장탐방	'TV내무반 신고합니다' 촬영기	20
항공우주군을 향하여	대 탄도탄 요격무기(2)	22
하늘로! 우주로!	미래 항공우주군 건설을 위한 우주상식(3)	24
이 달에 만난 사람		26
항공기 열전	F-2(미·일 공동 개발)	30

추억의 사진 한 장	공군사관학교 신입생 제식훈련(1960년대)	31
마음으로 읽는 글	두 스님과 여섯 아기들	32
책으로 읽는 세상	홀대받아 온 현대사를 찾아서	34
기지극장	<찰리의 진실>	35
문화마당	몽환적인 아름다움의 해석, 꽃 - 한국화가 황신영 편	36
공군 박물관	신화 속의 전투기를 찾아서	38
풍경의 발견	왠지 모를 슬픔이 저머오는 곳, 해미읍성	40
GAME ALERT	시뮬레이션 게임 이야기 - 2차 세계대전(3)	43
건강 365일	건강나이 측정법	46
생활법률교실	잊기 쉬운 보험상식	48
음악의 날개 위에	클래식 음악 어떻게 시작할까?	49
기상전망대	해빙기 안전에 유의하자	50
마음의 양식	상식적인 사고(思考)	51
찾아가자 인터넷	의사과학/정신과학	52
이 달의 역사인물		53
장병기고	클라우제비츠 사상의 현대적 함의	54
항공계 소식	세계 민항업계, 작년 가장 안전했던 한 해 외 2건	56
알립니다	보라매회 '공군전우회' 로 확대 개편 외 2건	57
문화가 소식	뮤지컬 캣츠 내한 공연 외 2건	59



참모총장 공군대장 김 대 욱

참모총장으로 부임한 이래,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인사를 올바르게 하겠다는 신념으로 공군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공감도 있었지만, 반면에 일부에서 불평 불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군의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총장의 개혁의지는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며, 임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 차례 강조하였듯이, 공군은 한 사람만의 공군이 아니며, 공군을 올바르게 개혁하는 일도 총장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여러분 모두가 명심하여 한마음으로 동참하고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공군본부 업무분석회의 훈시 중에서

신년 교례회 인사말

존경하는 역대총장님, 예비역 선배님,
그리고 친애하는 동기생 및 후배 여러분!

우선, 오늘 “신년교례회”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빛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작년 한해 동안 우리 공군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선·후배 여러분께 공군 전 장병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2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보람있는 일도 있었지만, 시련도 적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는 선·후배님들의 격려와 보살핌에 힘입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지혜롭게 넘길 수 있었고, 공군 발전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질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1일, 저와 참모들은 떠오르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결심은 우리의 안보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우리 공군이 앞장서서 공

군 본연의 임무인 영공방위 임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방태세에 조금의 허점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결심은, 우리 공군 내의 변화와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함으로써 멋있고 자랑스러운 공군을 후배들에게 물려주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두 번째 결심사항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변화와 개혁은 우리 공군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일인 만큼 설사 일부에서 저항과 반발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사명감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리라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예비역 선·후배님들께서는 이러한 결심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대하심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행사가 우리공군의 모든 예비역과 현역이 공군을 위해 한마음·한뜻·한목소리가 되는 계기가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O.K. Air Force



- 1 김대욱 참모총장 현역, 예비역 초청 신년교례회 주관
- 2 제57공수지원단 대테러전 참전 1주년 기념 공로장병 시상식 가져
- 3 김대욱 참모총장, 한국과학기술원 총동창회가 선정하는 '올해의 동문상' 수상

1 2
3



R.O.K.



4 5

6



- 4 헌법재판소장, 제10전투비행단 방문, 위문품 전달
- 5 공군 군악대, 대전고등학교 관악부 초청, 병영체험 실시
- 6 2003년 첫 작전사령부 지휘관 회의 개최

Air Force

7 8
9



- 7 방공포병사령부, 백혈병 전우돕기 성금 전달
- 8 제5전술공수비행단, 민·군 합동 항공기사고 처리 훈련 실시
- 9 제16전투비행단, 고등비행수료식 거행
 - 부자 전투기 조종사가 된 이대진 중위와 이경환 준장, 오연군 준장과 오상석 중위(왼쪽부터)



R.O.K. Air Force



10
11 12



- 10 공군사후장교회 제18전투비행단을 방문
운전병 혼자서 원격조정하여 작업할 수 있는
신형제설기(기증자 : 장찬호, 사후84기) 전달
- 11 제15훈성비행단, 15비 명인 선발
- 12 제20전투비행단, 한·미 연합 공중 훈련 실시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면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공군,

그러나 마음이 따뜻한 공군인들이 펼치는 국민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다.

재난 구조 및 복구작업, 의료지원, 농번기 일손돕기, 자원 봉사활동 등

언제, 어느 곳에서도 든든한 국민의 보호자로, 웃음 띤 다정한 이웃으로 다가가는 공군!

그들의 정성과 사랑이 국민들에게는 더없는 신뢰를 안겨준다.



1
2 3

1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대전 노인요양원 방문, 봉사 활동 실시

2 제20전투비행단, 어린이 항공우주과학단원 초청, 부대견학 실시

3 제8전투비행단, 인근지역 주민 초청, 부대견학 실시





4
5 6

- 4 제16전투비행단, 인근지역 노인대상 영정사진 촬영
- 5 제10전투비행단,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전달
- 6 제20전투비행단, 초등학교 대상 충·효·예 교육 실시



공군개혁의 필연성과 당위성

〈편집자 주〉 참모총장 지휘의도가 공군 전장병에게 정확히 상의하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군지에서는 이번호부터 「참모총장 지휘의도 해설」란을 연재합니다.

參謀總長 指揮意圖 解說(1)

김대욱 참모총장은 지난해 3월 취임하면서, 지휘표인 '선진정예공군 육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공군의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개혁의지를 천명하고, 지난 11개월 동안 인사제도 개선 등 여러 가지 개혁과제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참모총장이 직접 밝힌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공군'이란 부정·부패·부조리가 없는 공군, 공평무사하고 신상필벌하는 공군을 말하는 것이다. 참모총장의 개혁의지는 우리 공군이 진정으로 미래지향적인 군대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되어 온 관행이 있다면 과감히 바꾸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참모총장은 왜 공군의 개혁을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려 했을까? 그 답은 참모총장이 우리 공

군을 바라보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참모총장이 볼 때, 우리 공군은 아직도 내부적으로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 소집단 이기주의 등을 완전하게 청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공군의 주요정책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참모총장은 이처럼 잘못된 사고방식과 낡은 관행으로서는 공군의 밝은 장래를 장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배들에게 보다는 공군을 물려 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공군의 개혁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공군장병 모두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참모총장은 공군개혁 과제 중에서 우선적으로 인사관리 개선 및 보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참모총장의 4대 지휘방침 중 하나인 '인간중심의 지휘관리'가 제시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고도의 지식정보화 사회일 수록 사람이 모든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체임을 통찰하고, 인사개혁을 통해 오랫동안 정체된 공군조직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작전분야 위주의 인사관리에서 탈피하여 제 분야간 균형있는 인사발탁을 통해서 공군의 화합과 단결 및 침체된 공군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한 것이다.

參謀總長 指揮意圖 解說(1)

참모총장은 공군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노력(TOP-DOWN)과 함께 아래로부터의 개혁욕구(BOTTOM-UP)가 함께 동조될 때 성공할 수 있음을 역설하면서

공군 개혁에 전 장병의 적극적인 호응과 동참을 당부해왔다.

공명정대한 진급과 보직관리 등 인사제도 개선 및 보완에 중점을 둔 참모총장의 초기 개혁추진은 소수의 불평불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장병들이 이에 공감하고 성원을 보내줌으로써 앞으로 추진될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 본격적이고도 총체적인 공군개혁추진에 큰 힘을 얻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참모총장께서 누차 강조해 왔듯이, 공군은 총장 한사람의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인 것처럼 공군의 변화와 개혁도 지금까지처럼 총장 혼자 힘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모두가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공군개혁에 공군 장병 모두가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군의 모습을 기대한다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후 74기 강상현

전통적으로 '공군'은 우리 국군의 가장 믿을 만한 정예의 한 축이다. 특히 현대전은 첨단 병기와 우수한 인적 자원의 조화에 의해 그 승패가 갈린다는 점에서 최첨단 전투 비행단과 이를 뒷받침하는 우수한 기술 및 지원 병력을 갖춘 우리 공군은 '막강 국군'의 가장 미더운 간성이라 아니할 수 없다.

최근의 복잡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도 우리 공군은 항공우주군 및 전략형 공군 건설을 위한 본연의 임무 완수와 국가 방위력 증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음을 본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우리 공군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

인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새로운 세기가 열린 지 3년이 지나고 있고, 재미난 새해가 밝은 지 이제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강하게 일고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 강력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하는 양면성을 지닌 정세 변화이다.

그 핵심은 '북핵 문제'의 재연이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과 북-미 제네바 협정 파기 등에 따라 한반도는 새로운 긴장감에 휩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좁게 보면 북한과 미국간의 갈등 국면을 반영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보다 넓게 보면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반의 안정과 평화 기조를 뒤흔드는 일이며, 국제적인 새로운 전쟁 위험을 예고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첨예한 갈등과 긴장의 물밑으로는 대화와 협상의 새로운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또 다른 의지도 또한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국제적인 여론을 외면하면서까지 초강수로 맞대응하는 북한



의 궁극적인 희망이 결국은 북미 및 북일간의 관계 개선과 그로부터 최대한의 경제적인 지원을 끌어내려는 외교전에 다름 아니라는 해석도 일견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바로 이러한 양면성을 지닌 '북핵 문제'와는 별도로 남북간의 교류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주도권을 갖고 '북핵 문제'의 지혜로운 해결사이자 영향력 있는 중재자로서 그 위치를 보다 확고히 했으면 하는 바람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특히 이번 달에 새로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는 기존 남북관계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주변 열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보다 자주적인 입장에서 '북핵 문제'에 공조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쟁 위험에 대한 적지 않은 현실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는 결국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고, 남북관계 또한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리라고 본다.

그러나 한 나라의 군대는 언제나 만의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 유사시에 대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평화로운 시기에라도 군은 전쟁 역지력을 위해 생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투력에서 앞서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는 전시에라도 필승의 군대로서 그 위용을 떨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푸른 창공을 박차고 오르는 보라매의 멋진 이미지를 국민의 뇌리 속에 심고 있는 우리 공군은 최근의 국내외 정황 변화에도 적절히 대응하고 또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으리라는 국민의 신뢰를 한몸에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 주변 정세가 비교적

불안정한 현시점에서, 지금 우리 공군이 유사시에 어떤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를 국민 앞에 보다 가시적으로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는 것도 그러한 믿음 때문이 아닐까 싶다. 24시간 비상대기 상태에 있는 우리 공군이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시 출동,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면서 동시에 그 기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가 보다 민주화되어 가는 일반적인 추세 속에서 군 내부의 민주화도 가일층 쟁겨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본 필자가 사관후보생이던 1970년대 말에는, '민주주의에는 군대가 있지만, 군에는 민주주의가 없다'고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

계급적 위계와 규율은 엄격히 지키면서도 장병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군 발전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할 때 군의 사기와 전투력은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곧 전투력인 것이다.

공군은 최근 기본과 원칙이 바로선 공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에 많은 성과도 있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변화와 개혁이라는 이 시대의 화두를 달성하기 위해 공군은 다른 누구보다 한층 더 앞서나가리라 확신한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의 바탕 위에 한편으로는 '필승 공군을 위한 전략형 공군'으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첨단과학 기술에 입각한 항공 우주군'으로서 날로 발전하는 우리 공군의 위상을 거듭 확인하고 싶다.

변화의 시대에 공군의 변함없는 건투를 바란다. ⊕

공군에 불고 있는 변화와 개혁의 바람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안 정 훈

공군인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힘차게 추진함으로써 '진정 멋지고, 스스로 자랑스러우며, 외부에서도 부러워하는 공군'을 건설하는 실천과제들이 남아 있다.

공군의 '변화'와 '개혁'은 '자족형 토복이(토끼와 거북이의 어정쩡한 상태)'처럼 중간 수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초일류 공군조직'으로 발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즉, 'Good Air Force'에서 'Great Air Force'로의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고대에 어떤 왕이 길 한복판에 큰 바위를 갖다 놓고 누가 치우는가를 지켜보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위가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불평만 할 뿐, 아무도 바위를 옮기려고 하지 않았다.

실망한 왕이 발길을 돌리려고 할 즈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 그냥 지나칠 줄 알았던 농부가 끙끙거리며 바위를 옮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역시 구경만 할 뿐이었다. 마침내 농부가 바위를 치우자 바위가 있던 자리에는 황금이 가득한 주머니가 있었고, '이 금화는 바위를 치우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는 왕의 편지도 함께 있었다. 남들이 하기 싫어 하는 일을 우직하게 실행한 농부는 그 금화 덕분에 오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앞에서의 교훈적 이야기가 시사하고 있듯이,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당사자가 스스로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 없으며, 당연히 진보나 발전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만약에 그 농부의 주변 사람들이 힘을 합쳐 바위를 옮겼다면 그들 역시 커다란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 시대 최대의 화두 '변화'와 '개혁'

바야흐로 '변화'와 '개혁'은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국가 등 모든 사회 단위들이 끌어안고 노심초사해야 하는 최대의 화두가 되어버렸다. 이제 변화와 개혁은 일부 리더

들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비껴 나갈 수 없는 현 시대 공통의 '생존 법칙'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대한 변화와 개혁은 어떻게 해야 멋지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

사상 최초로 공군력만으로 주도되고 종결된 걸프전에서 항공전략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바 있는 항공 전략가 John A. Warden 3세는 「프로메테우스 경영전략」이란 그의 저서에서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키는 선행조건으로 '이력현상(履歷現想, Hysteresis Effect)'에 대한 충분한 대처와 '탄성한계(彈性限界, Elastic Effect)'의 극복을 강조하였다. 즉,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선 조직체가 원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향, 곧 '이력현상'을 경계하고 반드시 제거해야 하며, 이와 함께 변화수용의 한계점인 '탄성한계'를 능히 뛰어 넘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시스템에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John A. Warden 3세의 시각을 빌려 우리 군은 어떻게 변화하고 개혁하여야 하는가를 생각해보자.

오늘날 군 조직을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꼽고 있는 일사불란한 위계질서와 지휘관의 강력한 리더십(leadership)은 비밀상적인 위기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군 고유의 특성상 조직유지와 발전의 양측으로 변함없이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앞서 밝혔듯이 군대 역시 변화와 개혁으로부터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위계질서와

리더십에 의한 변화와 개혁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타율성과 대상의 모호함으로 인해 성공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군대에서의 변화와 개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대체동력으로 리더십과 위계질서에 의한 강제 못지 않게 높은 수준의 자율적 개혁의지와 실천력을 갖고 있는 일반장병들의 '팔로어십(followership)'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일반 장병들의 팔로어십이야말로 올바른 개혁의 방향을 지도하고자 하는 군대의 리더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귀한 보약인 동시에, 구성원의 충분한 공감과 자발적인 동참으로 이루어지는 팔로어십의 뒷받침 없이는 어떠한 리더십도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강력한 추진엔진을 달고 가동하는 '공군 개혁호'

공군은 김대욱 참모총장 취임 직후부터 '조용한 가운데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개혁의 전반부는 어쩔 수 없이 참모총장이 이끌어 가는 Top Down 식 개혁이 주류를 이루었고, 그 결과 공군 전 장병들에게 개혁에 대한 공감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줄 수 있었다. 이제는 참모총장의 Top Down 방식과 공군 전 장병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Bottom Up 방식의 통합적 '개혁'이 제대로 도킹을 마쳐서 본 궤도에 들어선 상태로, '공군 개혁호'가 강력한 추진엔진을 달고 본격 가동되는 단계

로 접어들었다.

지금 공군은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와 '개혁'의 씨앗을 뿌리는 단계, 즉 생각(Mind)과 기반(Infra), 그리고 구조(Structure)와 체계(System)를 바꾸는 과정을 마친 상태다. 앞으로는 반개혁적인 이력현상과 탄성한계를 확실히 극복하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힘차게 추진함으로써 '진정 멋지고, 스스로 자랑스러우며, 외부에서도 부러워하는 공군'을 건설하는 실천과제들이 남아있다.

공군의 '변화'와 '개혁'은 '자족형 토복이(토끼와 거북이의 어정쩡한 상태)'처럼 중간 수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초일류 공군조직'으로 발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즉, 'Good Air Force To Great Air Force'로의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Good Air Force에서 Great Air Force로

희망과 기대 속에 시작된 2003년 계미년(癸未年)이 공군의 '변화'와 '개혁'을 성취하는 결실의 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군 구성원 전체의 자발적인 동참과 실천이 필요하다. 참모총장의 확고한 개혁의지와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공군 구성원 전체의 공감대와 적극적인 동참이 있기에 반드시 목표를 구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



국내 첫 헬기 CBT 개발 : 6전대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중위 김 동 주

국내 유일의 탐색구조 전문부대, 공군 유일의 특수부대, 빨간 베레모의 항공구조사... 6전대하면 생각나는 것도, 부르는 애칭도 많다.

어느 하나 평범한 것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헬리콥터이다. 6전대는 헬리콥터를 주력 항공기로 하는 유일한 공군부대이기 때문이다. 공군 내의 유일한 헬기부대라는 것은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기도 하다.

6전대는 특별하다.

헬리콥터이기에 정밀한 탐색구조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타 비행부대와 호환성이 떨어져 조종사 양성과 항공기 정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그러나 6전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끊임 없는 연구개발과 탐색구조 교리 발간을 통하여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나아가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영역에 발을 내 딛고 있다.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헬리콥터 Computer Based Training(CBT) 장치가 바로 그 것이다.

이번에 개발된 CBT 장치는 헬리콥터 시뮬레이터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도태예정이던 UH-1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Bell-412 및 Bell-212 기종의 비행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특히 조종사가 직접 제작과정에 참여하여 실제 조종석과 연계되어 작동하도록 만들었기에 매우 사실감이 뛰어나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지원과 업그레이드를 통해 타 기종의 비행교육에도 사용하면 연간 4,000만원 이상 지불하던 위탁교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군에서는 헬리콥터 조종사 양성을 위하여 기종별로 노르웨이, 미국, 육군



등과 계약을 맺어 헬기 시뮬레이터 교육을 받아왔으며, UH-1 및 Bell-412/212 기종은 국내에 시뮬레이터가 없어 조종사 능력 배양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터라 이번 개발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남다르다.

처음 개발계획이 입안된 것은 2001년 10월, 그 후 약 14개월 동안 표준화평가실을 주축으로 비행대대, 정비대대가 참여하여 7명으로 결성된 제작위원회는 한마음으로 단결하여 갖은 난관을 극복한 끝에 380여 만원의 저 예산으로 개발에 성공하였다.

CBT 장치 개발을 주관한 6전대 표준화평가실장 박원태 소령(38세, 학군 15기)은 “제작위원들이 개인 임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제작에 참여하기 위해 일과 후에 작업하는 것이 안쓰러웠지만, 이렇게 개발하고 보니 흐뭇한 마음에 그 동안 힘들었던 것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계 최고의 탐색구조 전문부대를 꿈꾸며

6전대가 CBT 장치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축적된 기술력과 함께 끊임없는 자기혁신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탐색구조 전문부대를 지향하는 6전대



는 기존 임무의 성공적인 수행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완벽한 임무수행 능력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유·무형의 기술력을 축적해 나가고 있다. 해마다 10여 건의 창안품으로 각종 상을 휩쓸고, 지난 2000년 다목적 HH-47D/HH-60P A.P.U 정비용 Test Cell을 개발하여 보국포장과 국방부 은상을 수상한 것은 그 과정의 이정표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우의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 24시간 비상대기하고 있는 부대, 백령도에서 울릉도까지,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이 작전영역인 부대, 국내가 아닌 세계 최고가 될 때까지 자기 계발을 멈추지 않는 부대, 6전대.

그래서 6전대는 특별하다. ⚡



'TV내무반 신고합니다' 촬영기

제16전투비행단 중위 이재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KBS-1TV에서는 우리 장병들의 생생한 생활을 보여주는 'TV내무반 신고합니다'가 방영된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1월 13일 방송되었던 제16전투비행단의 촬영을 함께 준비한 16전비 정훈실 이준위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방영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약간은 과장된(?)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또다른 어려움을 읽을 수 있다.

'따르릉, 따르릉'

작년 12월 9일, 사무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TV내무반-신고합니다' 설문조사를 부탁하는 담당 작가의 전화였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FAX를 기다렸다. 이미 사전에 다른 부대에서 필요한 자료를 얻었던 터라 마음의 긴장은 덜하였다.

시간이 흘러 설문조사와 요청자료를 모두 담당작가에게 전해 주었을 무렵, 담당 PD와 작가가 사전답사를 왔다. 공군 촬영은 처음이라는 제작진의 말을 듣는 순간, 제작진을 바라보던 우리 정훈실 요원들은 가슴이 철렁하였다.

앞으로의 험난한 여정을 본능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다고 할까?

제작진 6명과 김수정 리포터가 부대에 도착했다. 그리고 시작된 촬영.

이들간의 촬영으로 '조종사 탄생기' 부분이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방송에 10분 나오기 위해서 이틀간 꼬박 촬영하다니... 그래도 '크리스마스에 촬영하지 않는 것만 해도 고맙지'라는 생각과 함께 첫 테이프를 무사히 끊은 것을 만족했다. 부대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크리스마스를 TV내무반 촬영과 함께 보내다니, 평생 기억에 남을 성탄절이 될 듯하다.

2년에 걸친 TV내무반 촬영

크리스마스 다음날, 병영수첩 촬영을 마치고 늦은 밤 제작진과 정훈실 요원들은 예정에 없던 긴급회의를 가졌다.

회의주제는 '소원수리 박준현 상병 편.'

혼자의 몸으로 3남매를 키워내신 어머니께서 현재 몸이 안좋으셔서 장남이 근무하는

부대에 면회를 오지 못한다는 것. 박상병은 자신이 근무하는 곳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다고 했다. 마침 12월 27일은 어머니의 생신.

'소원수리' 코너에서 자신이 주인공이란 사실을 모르다가 깜짝 놀라는 장면을 어떻게 촬영할 것인가가 오늘의 토의주제였다. 몰래카메라가 보기에는 재미있지만, 제작하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토론 끝에 나온 결론은 제작진과 정훈실 요원을 제외하고 아무도 모르게 하자는 것이었다. 박상병 자신이 주인공이란 사실을 알 수 없도록 소속인 헌병대대에도 한마디 말없이 다른 장병이 주인공인 것처럼 가상 상황을 설정하여 여러 개의 복선을 준비하였다. 우리는 헌병대대의 또 다른 인물 최병장(정말 미안하다! 최병장)이 주인공인 것처럼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리고 이날 취재진은 박상병의 어머니가 계신 대구로 이동, 어머니를 인터뷰한 후 부대로 모셔왔다.

부대 내에 남아 있던 우리는 '송년의 축제'를 '박준현 상병 소원수리' 코너를 위해 준비했다. 이윽고 축제는 시작되었고, 많은 장병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진 후, 박준현 상병의 어머니가 무대에 등장함으로써 이들은

눈물의 상봉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틀간의 촬영은 끝났다. 남은 것은 '병영일기.' 이것은 1년(?) 쉬고 내년에 촬영하기로 했다.

1월 2일부터 촬영한 '병영일기'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다 보니 제작진이 어느새 부대에 도착했다. 이번 촬영은 VJ(video journalist)가 맡았다. 우리 정훈실 요원들은 VJ와 함께 부단히 뛰어다니면서 하나씩 화면에 담아 나갔다.

'병영일기' 부분의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전투기 내에서 편대가 임무를 수행하는 장면을 담는 부분이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일부터 4일까지 단 3일뿐. 그러나 하늘은 무심하게도 3일까지 눈이 내려 임무 수행 장면을 촬영할 수 없었다. 결국 제작진이 돌아간 후인, 6일 첫비행에 카메라를 전투기에 투입하여 촬영을 한 후 달리는 고속버스로 촬영 테이프를 방송국으로 보내줄 수 있었다. 만약 날씨가 더 안좋았다면 아마저도 안될 급박한 상황이었다.

불후의 명작 'TV내무반 16전비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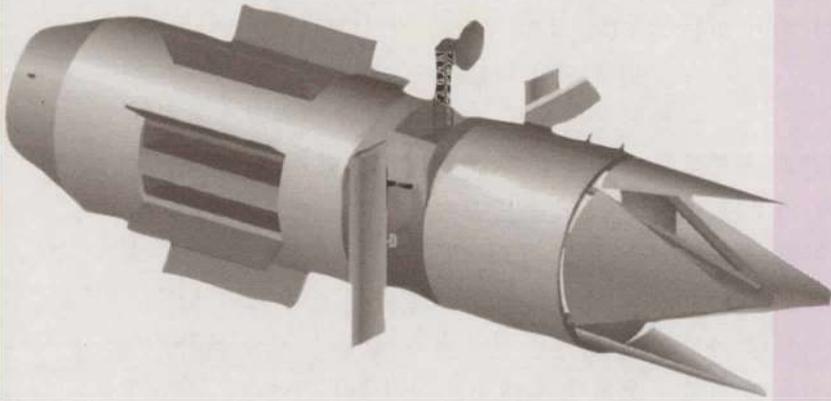
촬영을 위해 정훈실 요원들이 1달 가까이 분주하게 뛰어다닌 결과는 지난 1월 13일 방영되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불후의 명작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말없이 흘렸다. 서로의 마음을 다독이며 그렇게 모든 'TV내무반 촬영'은 모두 끝이 났다.

한 달간의 긴 여정을 통해 나는 정말 소중한 경험을 얻게 되었다. 특히 아주 세세한 부분, 예를 들어 엑스트라 식사까지 준비했던 경험은 앞으로의 군생활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대 탄도탄 요격무기(2)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 장영근



1. 우주무기 개발 어디까지 왔나?
2. 대 탄도탄 요격무기
3. 대 위성 요격무기

운동에너지무기(KEW)

운동에너지무기는 전혀 다른 발상에 기초를 두고 있는 대 미사일무기로서, 고속으로 운동하는 탄환을 목표 미사일에 충돌시켜 파괴시키려는 무기이다. 언뜻 생각할 때는 폭발물을 써서 파괴시키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공기가 없는 우주공간에서는 폭발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고속으로 나는 미사일을 상대로 해서는 어떠한 메커니즘을 써도 폭발이 후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파편에 의한 파괴를 기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충돌시키는 방법밖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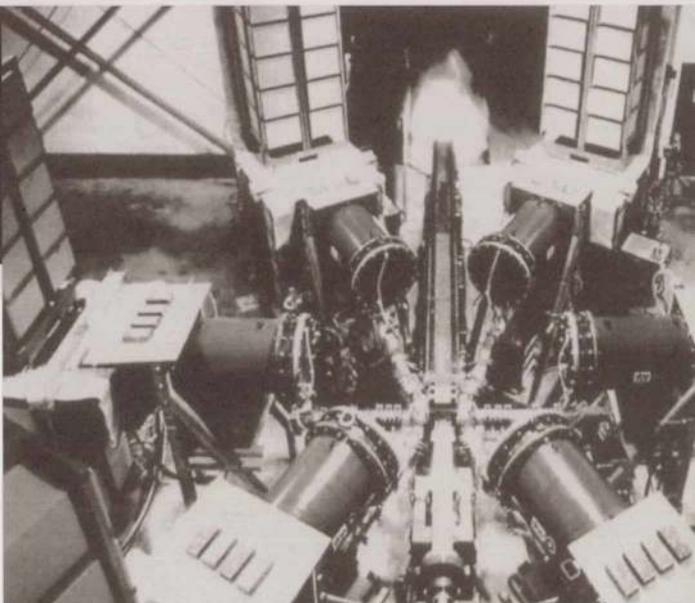
가속단계에서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는 시간은 180초에서 300초 사이에 불과할 만큼 짧기 때문에 초고속무기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운동에너지무기를 실용화하려면 적어도 미사일 순항 속도의 1.6배가 되는 시속 40,000km의 속도가 필요하다. 화약을 터뜨려 나가는 탄환보다 15배 이상 빠른 속도이다. 그러나 그 정도의 속도로는 유효거리가 1,800km에서 3,000km에 머무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초속 20km정도의 속도가 바람직하다. 그 정도의 속도와 유효거리라면 화학레이저 또는 X선 레이저를 탑재한 위성과 마찬가지로 지구를 도는 궤도 위에 배치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듯 탄환을 초고속으로 날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고속화를 이루면 또 다른 이익이 생긴다.

물체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그 질량에 속도의 제곱을 곱한 값의 1/2, 즉 $E=(1/2)mV^2$ 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속도의



가속단계에서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는 시간은 180초에서 300초 사이에 불과할 만큼 짧기 때문에 운동에너지무기를 실용화하려면 적어도 미사일 순항 속도의 1.6배가 되는 시속 40,000km의 속도가 필요하다.



제곱에 비례하여 커지며, 필요한 에너지가 같다면 그만큼 탄환을 작게 만들 수 있다.

문제는 그러한 초고속을 어떻게 해서 실현 시키느냐 하는 것인데, 로켓추진방식으로는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의 하나가 바로 레일건이며, 이것은 전자가속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두 쌍의 레일 사이에 강력한 자계를 생성시켜, 이 사이에 전도성을 지닌 탄환을 두면 앞으로 나가는 에너지가 생겨 점점 가속되어 종국에는 목표로 한 속도에 도달할 수 있다. 전자가속을 이용한 레일건은 이론적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알려져 실험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별로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했다. 지구상에서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레일과 탄환 사이의 마찰이 커서 좀처럼 가속되지 않는다.

또한 공기의 저항으로 금방 감속되어 버린다는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우주공간에 놓으면 중력도 작용하지 않고, 공기저항도 없기 때문에 효과를 볼 가능성이 특히

커진다.

본질적으로 레일과 탄환 사이에는 마찰이 크지만, 플라스틱제 탄환을 특수합금으로 도금하거나 특수합금 깍뎀기를 씌우면 해결된다. 즉, 퓨즈처럼 녹아서 기화하기 쉬운 합금을 사용하면 큰 전류가 통과할 때 순식간에 증발해 전도성을 지닌 플라즈마가 된다. 이런 방식으로 탄환과 레일 사이에 마찰 없이 전도성이 유지되며, 탄환은 그 자체가 고속으로 운동하는 플라즈마에 실리듯이 고속으로 발사된다.

운동에너지무기의 실질적인 배치를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에는 적당한 궤도 및 초고속 속도를 얻는 것, 엄청난 양의 추진제 운반, 적 탄도탄 및 위성을 파괴한 후 파편에 의한 아국의 위성 손상 배제 등이 있다. 어쨌든 중요한 우주무기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궤도예측이 손쉬워 적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미래 항공우주군 건설을 위한 우주상식(3)

우주생활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처 우주무기담당

우주선의 내부

우주선은 우주비행사들이 장기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온도, 습도 및 생활 편의시설 등 잘 갖춰져 있다. 우주선 실내공간의 공기는 지상에서와 똑같이 질소와 산소가 4 대 1로 혼합된 공기로 채워져 있다. 산소는 전기 분해로 공급되는데 전류가 물 저장고를 통과하면서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방법을 사용한다. 우주선의 생명유지장치를 통해 온도와 습도는 반소매차림으로 지낼 수 있을 만큼 쾌적하게 유지된다. 공기가 탁해지거나 냄새가 발생하면 정화장치가 작동된다. 산소는 우주선 안에 보관돼 있는 액체산소로부터 계속 공급된다.

취침시설, 화장실, 샤워시설, 냉장고와 식탁이 갖추어진 주방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시설은 모두 갖춰져 있다. 이외에 승무원들의 건강을 위한 운동기구도 있다.

우주인의 식사

우주공간에서는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체력소모가 지상보다 더 크다. 또 무중력 상태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 뼈에서 칼슘이, 근육에서 질소가 빠져나간다. 따라서 우주인들에게 균형 있고 영양가 있는 식단이야말로 필수적이다. 우주식은 초기에 소시지맛이 겨우 나는 고무처럼 질이 나빴지

만 현재 우주 왕복선에는 지상의 폴코스 식사와 비슷한 메뉴를 비롯해 1백여 가지의 특별 요리가 준비돼 있다.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는 '즉석국' 자체가 원래 우주식을 응용한 것이다. 다만 과일, 음료수 등과 같이 물기가 있는 음식물은 발사시 무게를 줄이기 위해 진공 건조시켜 포장돼 있다. 먹기 바로 전에 수분을 공급해 먹는다.

음식을 먹을 때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음식물은 무중력상태에서 떠다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탁에 고정시켜야 한다. 식사할 때는 서든 앉든 고정된 자세가 좋다. 그리고 음식물을 입에 넣을 때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먹어야 한다. 급하게 서둘다가 음식 부스러기가 떨어져 나오면 공중에 떠다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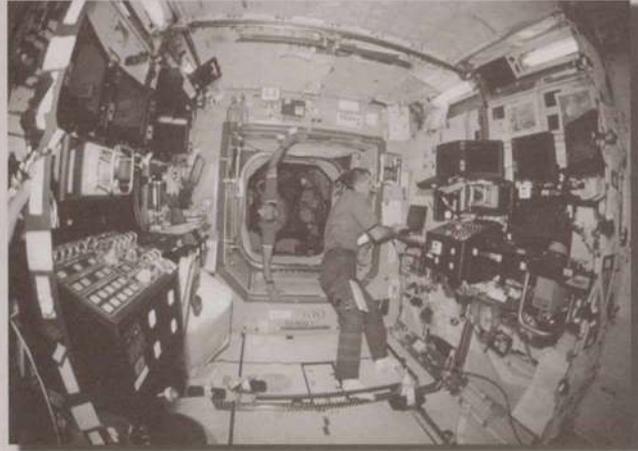
우주인의 배설

무중력상태에서 배설할 경우 공중에 떠다니는 배설물은 어떻게 처리할까? 화장실에서는 물이 아니라 공기를 이용해 배설물을 빨아들인다. 물론 용변시 몸은 벨트를 이용해 번기에 고정시킨다. 하지만 용변 중에 책을 보거나 창을 통해 지구를 내려다볼 수도 있다.

우주인의 수면

수면문제는 비교적 간단하다. 무중력상태

우주선의 생명유지장치를 통해 온도와 습도는 반소매차림으로 지낼 수 있을 만큼 쾌적하게 유지된다. 공기가 탁해지거나 냄새가 발생하면 정화장치가 작동된다. 산소는 우주선 안에 보관돼 있는 액체산소로부터 계속 공급된다.



에서는 지상과 달리 몸에 가해지는 압박이 없기 때문에 훨씬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다. 다만 몸이 움직여 떠다니는 일을 막기 위해 벨트로 고정시키거나 칸막이가 있는 공간을 이용한다.

좁은 우주 왕복선에는 관처럼 생긴 1인용 침실이 4개가 있다. 우주 비행사 네 명이 이곳에서 잠을 자며 나머지 사람들은 슬리핑 백(침낭)에 들어가 잠을 잔다.



우주인의 목욕

몇 달 동안 우주공간에 머무는 경우 샤워 시설은 필수. 샤워시설은 지상과 비슷하다. 원형의 통에 들어가 샤워커튼을 치고 샤워기를 이용해 샤워하면 된다. 이때 공중에 분산되는 물방울은 진공장치를 이용해 빨아들인다. 여기서 나온 오수는 산소발생장치에서 재활용된다.

우주인의 운동

장기간 우주에 머무는 우주인들은 근육이 늘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주선에는 러닝머신과 고정자전거 등 필요한 운동기구가 비치돼 있다. Ⓛ





지게차부터 항공기까지

대담 · 정리/교육사령부 중위 박 윤 서

하나도 따기 어려운 자격증을 무려 22개나 취득한 서영진 병장. 특히 군대에 들어와서 30개월 동안의 군생활 동안 15개의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사실은 나태하게 군생활을 보내기 쉬운 장병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 지난 1월 9일 제대한 서병장을 제대 전에 만나 국방의 의무뿐만 아니라 자격증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의 군생활을 들어보았다.

각종 자격증 시험준비를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군에 오기 전부터 전기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도전한 전기공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후 고등학교에서 5개의 자격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생활을 인생의 소중한 경험과 경력을 쌓는 알찬 기간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자격증 시험이었습니다.

22개의 자격증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자격증이 있다면?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 처음으로 취득한 전기공사 기능사 자격증과 이병 때인 지난 2000년 11월에 취득한 자동차 검사 기능사 자격증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여 2~3번 떨어지면서 가장 힘들게 취득한 굴삭기 운전 기능사 자격증도 기억에 남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노하우가 있다면?

저는 매년 연초가 되면 그 해 계획된 자격증 시험일정을 확인하고 일정에 맞춰 휴가 계획을 세워 자격증 시험에 임하곤 하였습니다. 일과 후에 주요 내용을 쪽지에 적거나 Tape에 관련내용을 녹음한 후, 일과 중 휴식 시간에 공부하였으며, 일과 후에는 부대독서실을 이용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자신의 군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제 임무는 항공기 정비를 맡는 것이지만 부대 특성상 실제 항공기를 정비하는 것은 아니고 전시용 및 교육용 항공기를 관리하거나 각종 정비교육과 보조를 맡고 있습니다. 단지 철과 플라스틱 덩어리에 불과하던 것이 제 손을 거친 후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장비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즐거웠고 그래서 분야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어지고 여러 자격증에 도전하게 되는 동기가 됐습니다. 물론 일과 공부만 한 것은 아니고 학교 다닐 때 응원단의 경험을 살려 장병 장기자랑이나 기술학교 응원단장으로 매번 나서서 기술학교 내에서는 저를 모르

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웃음). 이제 와서 생각하면 지난 군생활 30개월은 언제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알차게 보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전할 자격증이 있다면?

아직까지 제가 경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사 자격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역 후 전기분야에서 실무경력을 쌓게 되면 「전

지니어로서 활약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자동차 정비공장을 직접 운영하며 자동차에 푹 빠져 사는 것이 꿈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군으로 군생활을 하고 있는 전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앞으로 군생활이 남은 후배들도 군생활이 사회생활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매사에 최



군대에 들어와서 30개월 동안의 군생활 동안 15개의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사실은 나태하게 군생활을 보내기 쉬운 장병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

기공사 산업기사 자격증」에 가장 먼저 도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생활을 통해 느끼고 배운 '산 지식'을 바탕으로 더 많은 분야의 자격증에 도전해 국내 최다 자격증 취득 신기록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관심 및 장래희망은?

제대를 앞둔 지금, 정비분야 공군 군무원으로 다시 공군에 돌아와 그 동안의 항공기 정비 노하우를 살려 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제대 후에 우선 학교를 졸업하면 제 주전공이자 관심분야인 전기엔

진을 다하고 자기계발에 더욱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생활 중에도 마음만 먹으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족했던 공부나 체력 등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 먹으면 무엇을 못하겠느냐"는 젊은이의 패기를 항상 간직하고 군생활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대답을 마치고 서병장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누구보다도 알차고 보람되게 군생활을 보내서일까? 그의 얼굴에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닥쳐도 능히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나고 있었다. ♣

38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사회로 돌아갑니다

대담·정리/공군본부 주임원사실 원사 박 의 수



한 분야에서 10년을 일하면 누구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고 한다. 하물며 강산이 거의 네 번 변한 38년을 보낸다면 어떨까?

지난 '65년 7월 1일 공군부사관 27기로 입대하여 만 37년 8개월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군에서 봉사하고 '03년 2월, 전역을 앞두고 있는 대전 현충원 의장대 황덕주 원사. 전역을 앞둔 황원사를 만나 그의 인생관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현재 근황은?

전역을 얼마 앞두고 되면 직업보도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저는 그 교육을 마다하고 현업무인 행정/보급관 임무를 부대에서 똑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역하는 날까지 계속할 것 같군요.

본인의 군 생활을 되돌아본다면?

저는 1965년 7월 1일, 만 17세(48년생)의 나이로 푸른 꿈을 안고 작렬하는 태양과 함께 공군부사관 27기로 입대하였습니다.

그 시절은 누구나 춥고 배고픈 시절이어서

힘들고 어려운 건 모두가 마찬가지였을 것
입니다.

특히 처음으로 근무하던 여의도 기지엔 겨울에 뜨거운 물은 고사하고 찬물도 잘 나오지 않아 겨울을 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이야 내무실에 더운물로 샤워도 하고 빨래도 손쉽게 할 수 있지만 어디 그 시절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디다 보니 어느새 38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공군인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1979년으로 기억되는데요. 미8군 의장대 파견근무시절 우리 한국군 의장대로서는 최초로 미공군 공로훈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이것이 공군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가장 자랑스러웠던 기억인 것 같습니다.

무척 건강해 보이시는데 체력유지에 남다른 비결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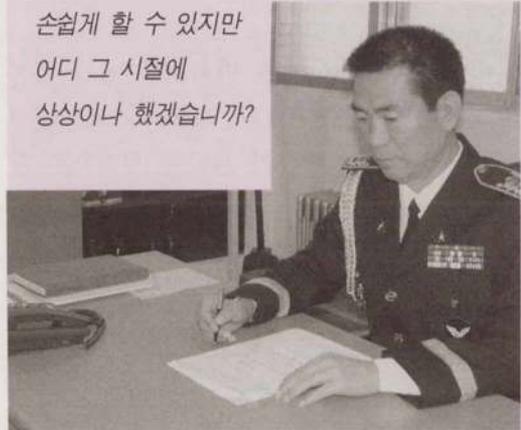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명랑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며 군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좀 젊어 보이나요?(웃음) 또 부대에서 20대 초반의 혈기 왕성한 젊은 병사들과 호흡하며 연병장을 뛰고, 바쁘게 지낸 것이 무엇보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같습니다.

전역 후 계획이 있다면?

그 동안 정신없이 바쁘게 시간을 보낸 것 같아 당분간은 인생을 되돌아볼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싶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음으로 근무하던 여의도 기지엔
겨울에 뜨거운 물은 고사하고
찬물도 잘 나오지 않아
겨울을 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이야 내무실에 더운물로
샤워도 하고 빨래도
손쉽게 할 수 있지만
어디 그 시절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돌려줘야 하나 생각해보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보람된 일을 찾아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장병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한민국 공군은 멋과 희망이 살아 있는 곳입니다. 또 인간중심의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강한 군대이기도 하고요. 우리 후배들이 앞으로도 공군의 전통과 명예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바랍니다.

또한 확고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전략형 공군과 항공 우주군 건설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F-2(미·일 공동 개발)

전투발진단 무기체계처

제2차 세계대전 패전 당시 취해졌던 일본의 항공산업 금수조치가 1952년 해제되면서 일본은 T-1 제트연습기 개발을 시작으로 독자적인 항공기술을 축적하고 F-15J를 포함한 약 20여 종의 제트항공기를 미국으로부터 면허생산하면서 최신 기술을 습득하여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능력을 확보하였다.

자신감을 얻은 일본의 산업계와 방위기관은 1990년대 후반부터 도태되기 시작하는 F-1 전투기와 F-4EJ 전투기의 대체기를 개발하기 위하여 일본정부에 F-SX 계획을 제안하였다. 처음에 일본정부는 독자전투기 개발을 거부하였으나 거듭되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1985년도에는 F-SX계획의 잠정적인 승인을 결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우려했던 대로 미국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계획을 중단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면서 F-16C의 면허생산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이를 거부하면서 3년 동안 협상이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F-16을 기본형으로 하는 새로운 전투기의 공동개발을 합의하게 되었으며 일본의 Mitsubishi 중공업과 미국의 Lockheed Fort Worth사를 주 계약자로 선정하고 199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총 130여 대의 F-2 전투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에는 F-2의 시제기가 최초로 비행을 시작하였고 지난 2000년도에 양산 1호기가 항공자위대에 인도되었으며, 현재는 약 35대의 F-2전투기가 작전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발의 주도권을 쥔 일본은 오랫동안 축적해온 최신 군사 기술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미국의 전투기 생산기술보다 앞선 기술들을 사용하였다. 주요 탑재 장비로는 일본제 멜코 레이더 및 화력통제장치, 전자전 컴퓨터 및 관성항법장치 등이 있으며 주요 무장으로는 Mitsubishi AAM-3 공대공 미사일, ASM-2 공대함 순항 미사일 및 적외선 유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8기까지 장착이 가능하며 20mm 기총 1문이 탑재되어 있다. ⚡

〈F-2 Vs F-16 제원 비교〉

구 분	FS-X	F-16	비 고
기장/기폭/기고	50.1/36.5/16.2	49.3/31/16.7	기장/기폭 연장
중량(lbs)	26,455	23,766	중량 10% 증가
최대 이륙중량	48,722	43,689	
최대 속도	2.0	2.0	-
무장 장착대	13개	11개	무장장착 능력 증가



공군사관학교 신입생 제식훈련(1960년대)

차렷!
열중쉬어!

턱 땡기고, 허리 펴!
눈 크게 뜨고!

제식훈련은
힘들다.
특히 처음일 때는

차렷 자세가
이렇게 힘든 것인지를

주름살이
이마가 아니라
턱에도 생긴다는 것을

볼펜이 손가락이 아니라
턱에도 끼어진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교관이 들고 있는 볼펜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40여년이 지난 지금과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듯 해도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두 스님과 여섯 아기들

방송작가 김 은 희

갓 태어난 아기가 버려졌다.

그것도 서울 한복판의 허름한 절문 앞에, 한 아기가 아닌 여섯 아기가. 희한하게도 하나같이 저체중아인 그 여섯 아기들을 키우고 계신 건 두 분의 스님이시다. 나이 아흔의 노스님과 원이 다 되어 가는 여자스님.

첫 번째 아기는 작년 7월의 어느 날에, 그리고 이후 다섯 달에 걸쳐 여섯 아기들이 차례로 강보에 싸인 채, 혹은 바구니에 담긴 채 새벽녘 절문 앞에서 발견됐다. 그 중엔 쌍둥이도 있었으며, 12월 17일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아기는 노무현 당선자를 닮았더라고 했다. 아기들의 짐 속에서 발견된 쪽지엔 생년월일과 어미들의 사연이 적혀 있었다. 하나같이 학생이거나 미혼모들...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였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여섯 아기들과 한번도 아기를 낳거나 키워보지 못한 두 스님이 공생하는 가난한 절의 풍경. 직접 두 눈으로 본 풍경은 더했다. 세 평 남짓한 좁은 방안에선 5개월 된 첫째부터 이제 막 꿈지락거리기 시작하는 막내까지 동갑내기 여섯 아기들이 주루룩 누워있고, 방안 여기저기엔 수십 개의 젖병과 산더미 같은 아기 옷들.

휴먼다큐멘터리에 몸담고 있는 방송쟁이들이라면 누구라도 '필이 팍' 꽃힐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환장'할 만한 '그림'이었다.

촬영은 일사천리였다. 속세일엔 관심 없다

아기를 키워본 사람은 안다.

아기 하나 키우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가를.

그렇지만 또한 그들은 안다.

아기를 키울 때의 행복에 견줄 만한

다른 지상의 행복은 없다는 것을.

는 듯 두 스님이 카메라의 존재 따윈 전혀 안중에도 없으셨으니 이보다 더한 '다큐멘터리'가 있을 것인가. 게다가 카메라만 댔다 하면 그야말로 '그림'들이 쏟아져 나왔다.

눈오는 날 아침, 커다란 장작더미 위의 가마솥에선 젖병들이 삶아지고 냉방을 고집하던 노스님은 손수 보일러를 떼신다. 새벽에 작은 스님이 승가대학을 가시면 아흔 노스님은 혼자 이리 종종 저리 종종. 결국 점심상 앞에서 밥을 씹다가 꾸벅꾸벅 조시는 노스님이라니. 여섯 아기들을 동반한 외출 작전과 인근 주민들이 가방에 그득그득 담아주는 옷가지랑 장난감이랑.

그 절은 난데없이 찾아온 여섯 아기들로 인해 변하고 있었다. 결정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두 스님의 관계였다. 늘상 정해진 좁은 공간에서 데면데면하게 지내시던 두 분이 아기들 때문에 서로 '소통'하기 시작한 것이다. 예전엔 무섭기만 하시던 노스님은 아기 울음소리에 찼찼매는 '귀여운' 스님이 되셨고 작은 스님은 노스님께 처음으

“한 번 버려진 아기를 어떻게
두 번씩 버릴 수 있는가.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이라고
훌륭하게 못 크라는 법은 없지.”

로 농담이라는 걸 건네신다. 두 스님을 더 신명나게 하는 건 절에 사람들의 발길이 부쩍 늘어난 것이다.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서 찾아와 봉사를 해주는 신도들로 인해 적적하던 절간은 종종 북적거리게 되었다. 그리고 아직도 눈앞에 어른거리는 풍경 하나.

노스님의 생일에 처음으로 케이크라는 것이 등장했다. 작은 스님이 쭉스러운 듯 축하노래를 부르는 동안 노스님은 노랫소리와 촛불에 넋을 잃으시고, 이어 케이크를 드실 때의 노스님의 환한 얼굴, 크림을 손가락에 묻혀 아기들 입안에 넣어줄 때의 작은 스님의 맑은 웃음소리, 그 순간, 작고 허름한 절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간이었다.

아기를 키워본 사람은 안다. 아기 하나 키우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가를. 그렇지만 또한 그들은 안다. 아기를 키울 때의 행복에 견줄 만한 다른 지상의 행복은 없다는 것을. 두 스님이 아기들을 입양하고 싶다는 주변의 간청에도 못 들은 척하는 진짜 이유는 어쩌면 그 행복 때문일지도 모른다.

말씀으로는 “한 번 버려진 아기를 어떻게 두 번

씩 버릴 수 있는가.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이라고 훌륭하게 못 크라는 법은 없지.” 하셨지만.

방송이 나간 후 쏟아진 시청소감 가운데 상당수는 아기들의 미래를 위해선 다른 배려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두 스님으로부터 아기들을 뺏어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스물 세 시간 분량의 테이프에 담긴 두 스님과 여섯 아기들의 풍경을 지켜볼 수 있었던 건 내겐 소중한 축복이었다.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해진 일상 속에서도 끊이지 않는 작은 스님의 웃음소리. 그리고 꾸벅꾸벅 졸다 지쳐 아기들 곁에 웅크린 채 잠든 노스님. 아기들 역시 자라면서 그 소리와 풍경을 듣고 보게 될 것이다. 그 아이들이 좋은 가족과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자라는 다른 아이들보다 덜 행복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



홀대받아 온 현대사를 찾아서

『한국 현대사 산책-1970년대편』/강준만 지음/인물과 사상사

KBS 기자 이진성

이제 막 30줄의 나이에 접어든 이들은 1970년대 유년기를 보냈을 것이다. 떠오를 듯 말 듯 머릿속을 맴도는 그 시절 기억들은 신문이나 자료의 도움을 받고서야 간접적으로 구체화된다. 비교적 충실히 의무교육을 받은 이 세대는 분명 국사 교과서에서 1970년대에 대한 사실(史實)을 배웠을 테지만 언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조차 아리송하다.

그렇다고 해도 어떤 이의 말처럼 '30년 동안 300년을 산' 사람들의 자취가 가장 강렬하게 아로새겨진 1970년대를 그저 10년 단위로 잘라낸 '시간의 묶음'으로 취급해서는 곤란하다. 좋은 싫든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 시절에 빛을 지고 있고, 그 시절로부터 받아내야 할 빛도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최근 들어 대중매체들은 1970년대를 조망하는 기획들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흑백 사진과 영상은 이성보다 감성에 호소하기 마련이어서 그 시절에 대한 아련한 향수만 자극했지 냉정한 평가를 내린 경우는 드물다.

'평화시장에서 궁정동까지'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으로



문을 열고 대통령 박정희의 피살로 문을 닫은 1970년대를 1년 단위로 나눠 그 해 일어난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엮어 낸 실록이다.

예컨대 1972년을 보자.

이 해엔 닉슨의 중공 방문, 7·4 남북 공동성명, 8·3 긴급 경제조처, 유신 선포와 찬반 투표, 통일벼 도입, 새마을 운동 등의 사건이 있었는데 개별 사건들을 퍼즐 맞추듯 따라가다 보면 1972년이라는 한 해가 고스란히 복원된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가급적 자신의 목소리를 죽이려고 노력한다. 신문과 잡지, 에세이와 전문 서적을 망라하는 방대한 자료를 섭렵해 인용과 각주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저자는 '말하기'가 아닌 '보여주기'에 그치며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미룬다.

저자는 이같이 10년 단위로 묶어 현대사를 해부하는 작업을 계속해 1940년대부터 현재까지를 새롭게 조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권 90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을 읽어가면서 과연 1990년대는 어떤 사건으로 구성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벌써부터 그가 복원해 낼 '1990년대편'이 기다려진다.👉

불완전한 리메이크, 박중훈의 성공적 할리우드 데뷔 : <찰리의 진실>

영화평론가 김 지 훈

<찰리의 진실>은 할리우드가 유럽 애호 취향에 몰두할 무렵인 1963년에 제작된 영화 <샤레이드>를 다시 만든 작품이다. 조나단 데미 감독은 원판의 골격을 유지하되 등장인물과 플롯을 바꾸는 과정에서 당대 프랑스 뉴 웨이브의 영상 언어를 대폭 받아들였다.

원작의 배경을 그대로 따르는 파리의 곳곳에는 미로들이 잠복하고 있다. 유럽 횡단 열차에서 한 남자가 살해되고, 그 부인이 살던 아파트는 어느새 가재도구가 치워진 집으로 변해 버린다. 줄지에 모든 것을 잃은 레지나가 남편의 살해에 담긴 진실을 탐문할 때 파리는 더욱 많은 골목들과 구역들로 쪼개어진다. 관광객과 제3세계 이주민들의 천국인 베흐시장과 19세기 중반부터 상업 문화의 보고로 남아 있는 아케이드, 탕고 리듬이 넘실대는 나이트 클럽이 바로 그곳들이다. 여기서 인물들은 불쑥 나타나서는 서로를 무시하고 추격하고 충돌을 일으킨다.

여기까지는 <샤레이드>의 오드리 헵번과 캐리 그랜트도 거쳐 갔던 코스다. 이제 <찰리의 진실>은 경쾌하고 현실 도피적인 분위기와 플롯의 과감

한 생략을 지향한다. 그런데 거리를 쏘다니는 핸드 헬드 카메라와 점프컷이 더 이상 과감한 재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실정은 오래된 일이다.

이에 덧붙여 이 영화의 시각적 불안정함은 인물을 자유분방하고 역동적으로 돋보이게 하지 못하고 로맨틱 미스터리 플롯마저 뒤엎리게 하는 지경까지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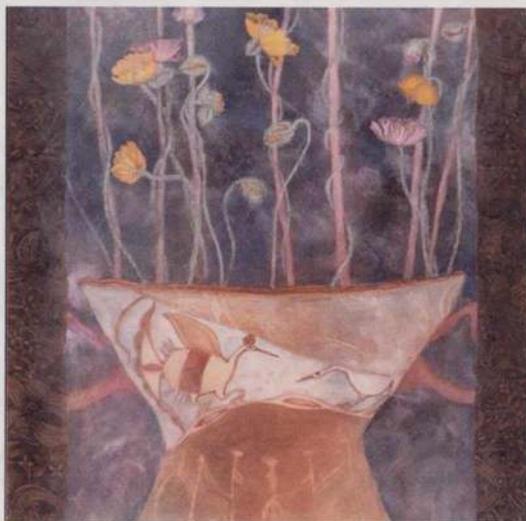
한편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 최초의 한국 배우 진출'로 화제가 된 박중훈이 맡은 이일상이란 인물은 처음에는 다른 악역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별다른 표정 없이 레지나를 추격하는 모습은 숨가쁜 감정을 전달하기보다는 기계적으로 보이고, 전직 특수부대원으로서의 전문적 카리스마도 다소 미약해 보인다. 그러다가 자신의 동료들이 하나 둘 죽으면서 이일상은 중요한 캐릭터로 부각된다. 여기서부터 박중훈은 스스로의 진가를 조심스럽게 꺼내 보인다. 600만 달러의 행방을 알아내고는 민첩하게 돌변하는 그의 모습에서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액션 장면이나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천진한 웃음이 스쳐간다. 나름대로 성공적인 데뷔전을 마친 셈이다.Ⓣ



몽환적인 아름다움의 해석, 꽃

- 한국화가 황신영 편 -

대전 MBC 리포터 김 선 영



관음증을 능가하는 짜릿함

갤러리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나는 항상 다른 차원의 세계로 공간 이동을 하는 느낌이 든다. 훑쳐보기의 관음증을 능가하는 짜릿함을 기대한다. 특히 젊은 작가들에게서 받는 신선함은 깨어있음과 열림, 그리고 발상의 전환을 이해하게 만든다.

한국화가 황신영.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 '작가는 자신의 작품과 닮는다는 말이 예외가 없구나.' 생각했다. 돌부리 밑 어딘가 비집고 피어 있을 법

한 신비로운 꽃. 한국화에서 느껴지는 깊이가 있는 색감, 그리고 석채와 금가루, 먹이 어우러내는 독특한 재질은 '작품에 손대지 마시오'란 금기를 깨고 싶은 유혹에 느낀다.

그녀의 작품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가 꽃이다. 바로 황신영 자신의 상징적 표현인 것이다. 가냘픈 줄기 위에 피어 있는 포피(서양 양귀비-황신영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꽃)의 모습은 현실 속에 인간군상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다.

동양화는 서양화와는 달리 같은 색이라도

기름 성분이 주는 답답함이 아닌 종이와 먹이 만들어내는 담백함과 무한한 깊이를 느끼게 한다. 그 중에서도 내가 기대가 되는 것은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여부이다. 재료에 따라 작품이 주는 느낌은 상당히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색이 있는 천연광물인 석채는 빛에 의한 표면의 난반사로 신비로운 반짝임이 일어나고, 색감이 다른 색채를 겹쳐 칠하게 되도 수용성이 아닌 가루입자이기 때문에 각각의 색이 자신의 색을 선



명히 들어내는 장점이 있다.

황신영의 작품은 이러한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다.

그녀의 작품은 꿈속의 한 장면 같다. 실제 존재하는 듯하지만 또 알 수 없는 신비감이 감돈다. 두 번째 그녀를 만났을 때 보라색 스웨터를 입고 웃으며 걸어왔다. 마치 그녀의 그림 속, 가는 줄기 위의 연한 바이올렛의 포피가 작품 밖으로 통겨져 걸어 나온 것 같았다.

자신의 꿈과 사랑을 꽃을 통해 표현한다는 그녀. 나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재료 석채에

그녀의 작품은 꿈속의 한 장면 같다. 실제 존재하는 듯하지만 또 알 수 없는 신비감이 감돈다. 두 번째 그녀를 만났을 때 보라색 스웨터를 입고 웃으며 걸어왔다. 마치 그녀의 그림 속, 가는 줄기 위의 연한 바이올렛의 포피가 작품 밖으로 통겨져 걸어 나온 것 같았다.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고 2월에 예술의 전당에서 있을 전시회 소식을 들려주었다.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싫다는 작가 황신영. 그래서 그녀가 그리는 꽃은 꽃을 본 후 그녀의 머릿속에 남겨진 꽃의 이미지와 형상의 표현이다. 그래서 같은 꽃이라도 그녀의 꽃은 다르다.

꿈을 꾸듯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사람.

젊은 작가 황신영.

그녀의 다음 꿈이 기대된다. ⊕

신화 속의 전투기를 찾아서

Royal Air Force Museum HENDON

사진 · 항공기 사진작가 김 태 협(www.aircraftphoto.co.kr)

영국의 Hendon과 cosford 두 곳에 있는 공군 박물관.

야외전시 위주에 활주로가 있어 매년 에어쇼가 열리는 cosford 박물관과 달리 실내전시장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Hendon 박물관, 이 박물관은 런던 시내에서 북쪽 외곽에 위치해 있어 전철을 이용해 갈 수 있는 곳으로, northern 라인에

colindale역에서 내려 3분쯤 걸어가면 만날 수 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Main Aircraft, Bomber Command, Battle of Britain 등 3개의 Hall에 200여 개의 주제별, 시대별로 구성된 항공기와 엔진, 무기, 시뮬레이터 등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다.



Avro Lancaster 1 (1941-1954)
2차대전 당시 사용된 4엔진의 중형 폭격기



Sikorsky R-4B Hoverfly 1 (1945-1949)
영국공군에서 운용된 첫번째 2인승 경헬리콥터 모델



Avro Rota (1934-1945)
실험용 개발이 아닌 영국공군에서 실제로 사용된 소형 2인승 오토자이로



영국 제트엔진의 선구자 Frank Whittle이 개발한 Power Jet W.2B/500



사출좌석의 개척자 Martin-Baker 항공사의 James Martin(1893-1981), 원 안에 조종사는 Valentine Baker(1888-1942)



British Aircraft Corporation Lightning F6
독특한 엔진배열의 1인승 초음속 제트 요격기



Bristol F2b
2인승 폭엽 전투기. 기체 내부를 보여주는 전시물이다.



Supermarine Spitfire I (1938-1945)
2차대전 당시 영국을 대표했던 1인승 전투기. 엔진부분과 마네킹 조종사로 당시에 모습을 재연했다.



Westland Wallace II (1933-1943)
2인승 단발, 폭엽기체. 기체 내부를 보여주는 전시물이다.



de Havilland Mosquito B35 (1941-1963)
엔진을 제외한 기체가 나무로 이루어진 2인승 경폭격기



읍성의 정문인 진남문은 화강석 홍예문 위에 팔각지붕의 단층으로 되어 있으며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

왓지 모를 슬픔이 저며오는 곳, 해미읍성

글·사진 사진작가 김 석 종

▼ 천주교도들을 묶어 매달아 고문하고 처형
했던 3백년된 회화나무(회화나무)



천주교도들을 거꾸로 물 속에 처박아 죽였던 진돗방



우리 나라의 옛 읍성에 가면 언제나 묘한 슬픔이 느껴진다. 왜냐하면 읍성이라고 해 봐야 읍성한 건물들이라는 게 원래 건물이 아닌 개축된 것이 대부분이고 예로부터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은 실상 돌무더기로 쌓아 놓은 성벽이 거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성벽의 돌들은 몇 백년이 지나고도 침묵과 세월의 흔적을 한 가득 머금은 채 그 자리에서 읍성의 외곽을 버티고 있다. 사라진 흔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슬프기도 하겠지만 해미읍성은 그 곳에 있었던 역사로 인해 더욱 슬픔이 저머오는 곳이다.

1,000여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이곳에서 참형을 당했던 곳이기도 하여 이곳에 가면 언제나 순교자들의 통곡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해미읍성은 충남 서산군 해미면 읍내리에 소재한 평지 성이다.

해미읍은 작은 읍에 불과한 곳이지만 1418년(태종 18년) 병마절도사의 병영을 덕산에서 이곳으로 옮기고 나서 1651년(효종 2년) 때까지 약 230여 년 동안 군사요충지의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다.

효종은 1651년 해미읍성을 충청도 호서병영 5개 중 호서좌영(湖西左營)지로 설치하고 나머지 전영(前營)은 홍성, 우영(右營)은 공주, 중영(中營)은 청주, 후영(後營)은 충주

에 각각 설치하였다. 해미의 호서좌영은 1894년 동학혁명 당시 일본군들과 관군들이 주둔하고 있던 홍주읍성을 공격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이용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 기록으로 볼 때 호서좌영은 동학혁명을 전후해 해체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련의 역사적 사실로 비추어볼 때 해미읍성은 태종 18년인 1418년에 이곳에 병마절도사가 설치된 이래 450년 동안 군사기지로 사용되어 온 유서 깊은 전략요충지였다. 그 긴 병영 역사 중 특기할 만한 사실은 1578년(선조 12년) 10월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병사영(兵使營)의 군관으로 부임하여 10개월 동안 근무했다는 것과 1866년 대원군의 천주교도 박해시 체포된 천주교도인을 이곳 해미읍성에서 처형한 사실이다.

해미가 포함된 내포 땅은 충청도에서도 선진문물이 빨리 전파되는 곳으로 18세기말에 이르러 천주교인들이 늘어남과 함께 순교자들의 희생도 엄청나게 컸다. 체포된 천주교도들은 이곳 읍성에 있던 감옥에 수감되었고 이어 모진 고문과 무자비한 죽음을 맞게 된다. 교인들은 성내에 있는 회화나무(호야나무)에 묶여 고문을 당하거나 목매달려 죽기도 했으며, 형리들은 많은 수의 교인들을 일일이 처형하는 것이 힘들자 해미천에

천주교도들을 투옥했던 감옥터. 현재 발굴작업이 진행 중이다.



읍성의 관아 뒤편의 언덕에 오르다보면 옛 읍성의 숨결을 느끼는 듯하다.



총 연장길이가 1,800미터인 해미읍성 성벽은 큰돌이 아래로 작은 돌들이 위로 가는 조선시대 성벽의 진형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12개군의 병무행정을 관장했던 집무실이었던 동헌

내 민가 및 관리사등 21동 복원, 성내 기존 건물 보수 6동 등의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해미읍성에는, 그러나 조선 효종

구덩이를 파고 한꺼번에 생매장을 하거나, 서문 밖의 돌다리에서 교인들을 팔 다리를 잡고 들어올려 돌다리 위에 머리를 부딪쳐 죽게 하는 등, 해미진영의 서문 밖에는 항상 천주교인들의 시체로 산을 이루고 그 피로 내를 이루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해미읍성 밖 해미천가에는 이들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천주교 해미무명 순교자 성지가 있어 순교자들을 기리는 천주교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미읍성의 성곽은 1491년(성종 22년)에 석성으로 축성해 4백여 년 간 지속되다가 1847년(헌종 13년) 현감인 박민환이 성곽을 대대적으로 보수 개축했다. 성곽의 총 연장길이는 1,800미터, 높이 5미터, 두께 2미터로 큰돌이 아래로, 작을수록 위로 쌓아 올리는 조선성벽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읍성의 정문인 진남문(鎭南門)은 화강석 홍예문 위에 팔작지붕의 단층으로 되어 있으며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 해미읍성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면사무소를 비롯한 관공서와 해미초등학교가 들어차 있었고, 민가 터를 비롯한 경작지로 이용되면서 많은 훼손이 잇따랐다. 해미읍성은 1963년 국가사적 116호로 지정되면서 이들 건물들과 민가들을 철거, 순수 사적공원의 큰 틀을 잡았다. 충남도청은 1997년부터 향후 10년간 총 사업비 130억원을 들여 당시 관아건물 14동과 성

호서좌영의 관아정문과 당시 12개군의 병무행정을 관장하던 집무실이었던 동헌이 있으며 읍성내의 가장 높은 곳에 팔각정 양식으로 건립된 망루가 복원되어 있다.

5만 7천여 평의 그리 크지 않은 읍성이긴 하지만 이곳에선 병영역사와 천주교 박해역사가 아직도 살아 숨쉬는 곳이다. 이곳에 가면 감옥 터를 발굴 복원하는 작업과 힘 자라는 대로 이곳 저곳에 객사나 관아부속 건물들을 건립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다. 해미읍성의 진남문 위에서 이 읍성을 내려다보면 왠지 쓸쓸하고 황량한 느낌을 감출 길이 없다.

저 멀리 보이는 관아 문까지 실상 텅빈 공간이 대부분인 이 읍성.

그리 높지 않은 성벽 이 안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자고 먹고 훈련하고 때론 상부의 명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몸서리치며 교인들을 죽여야만 했던 그들의 수많은 사연들이 서늘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선뜻함이 있다. 그리고 읍성을 나와 인근 주민들의 푸근한 인심을 접하게 되면 서민들의 그 순박한 마음씨에서 역사는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우리네 사람들의 착한 본성이 때론 더 슬프게 느껴진다. (4)

가는 길

자 가 용 : 서해안 고속도로 - 당진 - 서산 - 해미
 대중교통 : 서산 - 해미읍성(시내버스)
 연계여행지 : 안면도, 학암포, 개심사, 서산마애삼존불상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 □ - □ □ □

우편요금 수취인부담
발송유효기간 2002.6.1~2004.5.31
제501군사우체국 제 1 호

받는 사람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310호 '월간 공군'

3 2 0 - 9 1 3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장 병 독 자 엽 서

보내는 사람

□ □ □ - □ □ □

공군체송망을
이용해 주세요

수 신 : 참모총장
참 조 : 정훈공보실장(문홍과장)
발 신 :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월간 공군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

.....

[퀴즈로! 퍼즐로! 정답]

.....

.....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

.....

[퀴즈로! 퍼즐로! 정답]

.....

.....

.....

성실한 의견을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성실한 의견을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시뮬레이션 게임 이야기

- 2차 세계대전(3) -

프로그래머 · 게임평론가 **최 세 영**(artie@artie.pe.kr)

시뮬레이션이란 실제 세계의 어떤 현상을 수학적 모델로 만들어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재현해내는 것을 말한다. 시뮬레이션의 장점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과, 현실 세계에서 실험하기 곤란한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다. 비행 시뮬레이터를 예로 들자면, 기상상황이나 비행기의 고장 유무 등을 통제할 수 있고, 추락의 위험이 없다. 이런 장점으로 시뮬레이션이 실생활에 쓰이는 범위나 예는 셀 수 없이 많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오락성을 가미한 것이 바로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시뮬레이션 게임은 크게 항공기나 잠수함 등을 조종하는 액션 시뮬레이션, 그리고 위게임이라고도 불리는 전략 시뮬레이션으로 나뉜다. 물론 최근에는 이런 고

2차 세계대전을 다루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은 무수히 많지만, 돋보이는 사실성으로 꾸준한 인기를 누려온 두 시리즈가 있다. 팬저 제네럴 시리즈와 클로즈 컴뱃 시리즈가 그것이다.

전적인 분류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심시티, 심즈, 레일로드 타이쿤 같은 게임들도 많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런 탈장르화된 게임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시뮬레이션 게임의 또 다른 축인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소개하려고 한다.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도 비행 시뮬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오락성과 사실성 사이에서 많은 타협이 있기

마련이다. 워크래프트나 스타크래프트, 커맨드 앤 콘퀘스트 같은 게임들은 완전히 가상의 세계를 설정함으로써, 사실성을 포기하고 오락성을 추구해 성공한 게임들이다. 반면에 삼국지는 등장인물이나 역사에서 사실적인 묘사를 해, 오락성과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다. 배경이 2차 세계대전이 되면, 등장하는 역사나 병기, 전략, 전술의 고증이 얼마나 정확한지가 게이머들의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 물론 서든 스트라이크(Sudden Strike)처럼 오락성에 치우친 게임도 존재한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는 장르적 특성상 어느 정도 매니아 지향적인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데, 이런 게임은 개발자나 게이머 모두 상업적인 목적보다는 게임세계 그 자체의 완벽함을 지향한다. 그러한



TOBRUK



SALERNO



HQSCRN



ATTACK

노력들이 결국 역사를 이루어 온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을 다루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은 무수히 많지만, 돋보이는 사실성으로 꾸준한 인기를 누려온 두 시리즈가 있다. 팬저 제네럴 시리즈와 클로즈 컴뱃 시리즈가 그것이다.

팬저 제네럴 시리즈(Panzer General: 1994~2000, SSI)

SSI(Strategic Simulations, Inc.)라는 회사는 이름부터가 전략시뮬레이션을 의미한다. 1980년부터 8비트 애플 컴퓨터용 게임을 시작으로 무수하게 많은 게임을 만들어온 역사의 증인이라 할 수 있

다. 전략 시뮬레이션은 크게 실시간(Real-time) 방식과 턴(Turn)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실시간 방식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아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시간이 흘러 상대가 행동을 취할 수 있다. 반면에, 턴 방식은 두 진영이 각각 교대로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자기 차례가 끝나기 전까지는 적이 행동을 취할 수 없다. 각각은 일장일단이 있다. 턴 방식의 게임은 시간적인 압박감이 덜 하므로 전략성이 뛰어나지만, 실시간 방식은 순발력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공격당하기 때문에 긴장감이 있다. 컴퓨터 처리 능력이

월등히 우수해진 최근에는 아무래도 실시간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 네트워크를 통한 멀티 플레이 게임을 위해서는 실시간 방식이 여야 유리하다. SSI사는 워낙 과거부터 개발을 했기 때문에 턴 방식 게임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올랐다. 90년대의 대표적인 게임이라면 역시 팬저 제네럴 시리즈다. 팬저 제네럴 시리즈는 탄탄한 시나리오와 정확한 고증은 물론, 게임성에서도 훌륭한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유닛들 간의 혹은 병과간의 상관관계 표현은 과히 교과서적이라 할 만하다. 예를 들면, 보병은 도시를 점령할 수 있지만 기갑부대에겐 약하다. 기갑부대는 포병의 원거리 공격이나 대전차 공격에 약점을 보이고, 포병은 근거리 공격이나 폭격에 취약하다. 폭격기는 전투기의 손쉬운 공격 대상이지만, 전투기는 대공포화에 약점을 보이고, 또 기상악화 때는 출격할 수 없다. 같은 병과에서도 차이점은 있다. 보병을 예로 들면, 보병들의 이동이 행군에 의존한다면 속도는 느리지만 적의 매복 공격에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고, 반대로 이동 수단이

트럭이라면 속도는 빠르나 매복 공격에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지휘관의 능력도 전투력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게임이 진행되면서 역사 속의 병기를 하나 둘씩 만날 수 있는 것도 팬저 제네럴을 플레이하는 기쁨이다.

SSI사는 팬저 제네럴의 게임엔진을 이용하여, 소재만 다른 다양한 게임을 만들어 왔다. 태평양 전쟁을 배경으로 한 퍼시픽 제네럴(Pacific general), 우리 나라와 북한, 그리고 중국, 미국 등의 전쟁을 다루는 피플스 제네럴(People's general),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판타지 제네럴(Fantasy General) 등이 있다.

클로즈 컴뱃 시리즈(Close Combat: 1996~2000, Atomic Games/Microsoft/SSI)

팬저 제네럴이 턴 방식의 전략 시뮬레이션이라면, 클로즈 컴뱃은 실시간 전술 시뮬레이션으로 불리우며, 이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굳이 전술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부대의 최소 단위인 유닛이 사단이나 대대 단위가 아니라, 분대 단위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클로즈 컴뱃은 역사적인



CC3-2



CC4-2



Tactical Screen1



Tactical Screen2

고증에서 탁월하다. 역사 속의 실제 부대가 모델이며, 각 분대의 병과는 전술 시뮬레이션 답게 아주 세분화되어 있고, 병과에 따라 무기 체계가 다르며, 무기가 발사되는 소리마저 다르다. 총기 소리만으로 무기의 종류와 병과를 파악할 수도 있다. 분대장이나 분대원은 각각 이름과 계급이 있으며, 교전 결과에 따라 계급, 경험치, 사기 등이 바뀌고 공격에 따라 훈장도 수여된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 고립되거나 탄약이 떨어지면 겁을 먹고 도망가거나 항복하는 병사도 있다. 이처럼 인간의 심리적인 묘사도 탁월하다. 건물이

나 나무, 울타리 등의 지형 지물을 이용해 엄폐효과를 내기도 한다. 게임의 제목처럼 전쟁을 아주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현재 5편까지 나와있는데,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역사와 배경은 바뀌지만, 게임의 형식은 크게 바뀌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는다. 2편은 아른헴 다리에서 벌어지는 마켓가든 작전을, 3편은 동부전선에서의 바바루사 작전을, 4편은 발지전투를, 5편은 노르망디에 상륙하는 오버로드 작전을 각각 배경으로 하면서 역사속의 유명한 장면과 배경을 훌륭히 재현해 내고 있다. Ⓛ



건강나이 측정법

제3방공포병여단 의무실장 대위 **홍 승 권**

본인의 실제 나이보다 더 중요한 '건강나이'라는 것을 계산해 보자.

우측의 표를 가지고 측정했을 때 결과의 합계가 '-5'가 나왔다면 그만큼 건강나이는 5년 젊은 것이다. 만약 '+5'가 나왔다면 건강나이는 5년이 더 나이가 든 것이고 또 그만큼 건강의 위험요인이 많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갖고 있는 건강위험요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일찍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럼 위와 같은 건강나이는 과연 어떤 질환과 관련이 있을까?

식생활과 관련된 질환으로는 암,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골다공증 등이 있다. 또 비활동적인 성인은 운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2배에 이른다.

한편 흡연은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 중의 하나로 모든 암의 30%가 담배로 인하여 발생한다. 심근경색증, 관상동맥 질환, 뇌혈관 질환 및 말초 혈관 질환의 중요한 위험 인자가 되며,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비흡연자보다 흡연자에서 약 10배 높다. 이러한 사망률은 1일 흡연량과

흡연시작 시기, 흡연기간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음주는 소화기 및 간질환의 유발에 작용을 미쳐 위염, 위궤양, 소화기 출혈, 식도점막의 파열, 췌장염 등을 유발시키며, 지방간, 알코올성 간경화 등이 증가하게 된다.

스트레스는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궤양, 당뇨병 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생각되며 근래에는 피부 및 호흡기 질환, 암 등을 야기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교통사고, 중독, 익사, 추락, 화재, 약품 부작용 등 불의의 사고는 우리 나라에서 사망의 3번째 원인이며, 전체 사인의 13.9%를 차지하여 1~39세 연령군에서는 사망의 첫 번째 원인이다.

비만과 관련하여, 미국암학회의 조사에 의하면 체질량지수와 비례하며 사망률은 증가한다고 하며, 특히 고도비만(체질량지수가 35 이상인 경우)에는 정상인에 비해 사망률은 2배에 이르고 급사의 위험은 40배 정도로 높다.

이와 같은 건강위험 요인을 미리미리 예방하고,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건강위험요인을 교정함으로써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겠다. ☘

① 식생활	【 】점
다음 중 네 가지 중 모두 그렇다:-4 셋, 또는 둘만:-2 하나만:+2 모두 해당 없다:+4	
1) 항상 싱겁게 먹는다.(보통 사람은 소금을 더 쳐서 먹는 정도를 말함) 2)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는다.(일주일에 5회 이상) 3) 겉게 태운 음식을 먹지 않는다. 4) 식사를 규칙적으로 먹는다.	
② 운동	【 】점
1) 평균 일주일에 3회 이상 2) 1)과 3) 중간 3) 운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월 3회 미만 한다.	-2 0 +2
③ 흡연	【 】점
1) 전혀 피운 적이 없거나 10년 전에 끊었다 2) 5년 전에 끊었다 3) 1개월-5년 사이 끊었다. 4) 하루 1갑 미만 5) 하루 1갑 이상	0 +0.5 +1 +3 +5
④ 음주	【 】점
1) 전혀 마시지 않는다. 2) 평균 일주일에 2회 이하이고 소주 2홉 반병 이하 3) 평균 일주일에 3회 이상이고 한 번에 소주 2홉 1병 이상 4) 2)와 3) 사이	0 -1 +3 +1
⑤ 스트레스(지난 한 달 동안의 스트레스)	【 】점
다음 중 1개 이하 : -2 2개 : 0 3개 : +2 4개 이상 : +4	
1)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여러 번 있었다. 2) 내 자신으로 삶의 방식대로 살려다 여러 번 좌절을 느낀 적이 있다. 3)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요구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여러 번 있었다. 4)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느낀 적이 여러 번 있었다. 5) 할 일이 너무 많아 때로는 중요한 일을 잊기도 하고, 할 수 없을 때도 있다.	
⑥ 연간여행거리 혹은 위험한 직업	【 】점
1) 서울-부산 거리의 10배 이하/일이 위험하지 않다. 2) 서울-부산 거리의 10배 - 19배 정도/일이 약간 위험하다. 3) 서울-부산 거리의 20배 이상/일이 위험하고 사고가능성이 항상 있다.	-1 +1 +2
⑦ 운전 및 안전습관	【 】점
1) 안전벨트를 항상 착용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안전에 주의한다. 2) 1) 중 한 가지만 해당 3) 1) 중 두 가지 모두 해당	-1 0 +1
⑧ 건강검진	【 】점
1) 나는 2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는다. 2) 나는 전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 3) 1)과 2)의 중간	-2 +2 0
⑨ 나는 B형 간염 혹은 바이러스 보유자	【 】점
1) 그렇다. 2) 아니다. 3) 모른다.	+3 0 +1
⑩ 비만도	【 】점
1) 표준체중 : 이상체중의 90-110% 2) 과체중 혹은 저체중 : 이상체중의 110-119%/80-90% 3) 비만 혹은 심한 저체중 : 이상체중의 120% 이상/80% 미만	-1 +1 +4
* 이상체중 = (키cm - 100) * 0.9 <55cm 이하의 여성은 키에서 100만 빼 것이 이상체중임)	



잊기 쉬운 보험상식

제18전투비행단 법무실 중위 지 귀 연

사람은 크고 작은 위협을 만난다. 위협이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중요한 것은 원상 회복을 위한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받는 지, 그리고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 등의 인보험(人保險)에 가입한 경우, 보험 증서를 받게 되는 데 이때는 보험금이 지급되기로 한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쳤으면 다친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사망했으면 사망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일단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간 이상 병원에서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일단 상처를 입으면 보험 적용을 받아 치료를 해도 하자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가해자가 있다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게 정해진 양식대로 통보해 주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공단에서 조사를 거친 후, 환자가 가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았든지, 합의를 해 주었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환자에게 다시 치료비를 받아간다.

남에게 맞아 다친 경우 가해자를 고소하면 보험 혜택을 못 받을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고소를 하고 나서 보험에 따른 치료를 받은 후, 합의를 보았다면 공단에

합의했음을 알린 후 치료비를 다시 지급하든지, 아니면 합의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 측에 자신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알리는 것이다. 따라서 합의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건강보험이 적용된 치료비가 아닌 적용 전의 치료비로 계산하여 합의를 보아야 하는 점만 명심해 둔다면 자신에게 손해는 없을 것이다.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 자신이 피해자라면 상대방의 보험회사가 어디인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가해자가 직접 돈을 준다고 말만 해 놓고 지급을 자꾸 미룬다든지 나중에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꽤 있다. 이런 경우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꼭 필요한 것이 '교통사고 사실증명원'이라는 서류인데, 이 서류는 경찰청에서 발급해주는 것이고, 이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고접수를 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반드시 명심하여야 한다.

돈 받기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정(특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소지가 먼 경우, 예를 들면 여행갔다가 난 사고 등)이 있다면 일단은 사고가 아무리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후일을 위하여 각박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교통사고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다. ㊦

클래식 음악 어떻게 시작할까?

공군본부 중령 이상수



클래식 음악을 알면 인생이 풍요로워진다.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클래식 음악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 하지만 '어려워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길잡이가 없어서' 잘 알지 못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한 가지뿐이다.

음악은 그저 음악일 뿐이다.

클래식 음악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일단은 듣고 좋은 것, 들어서 아름다운 것에서 출발을 해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다. FM 라디오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자주 듣는 습관부터 들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곡도 있고, 걸러지는 곡도 있게 된다. 이 때 몸에 입력되는 선율이 생기게 되고, 그 입력된 것이 익숙해지면 그때 가서 곡명을 알아도 늦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흔히 클래식 음악은 곡명이 복잡하여 외우기도 힘들고 부담이 가서 쉽게 접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그러

나 복잡한 기호나 번호들이 후세 사람들의 분류상 편의를 위해서 붙여진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니 쓸데없이 기호나 번호를 외우지 말고 일단 음악 그 자체에 익숙해져서 선율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일단 그 음악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때 그 음악의 작곡자가 누구인지, 언제 작곡된 것인지 정확한 곡명이 무언지 알아보는 식으로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클래식 음악에 익숙해진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잡지에 국내 재벌 그룹의 오너가 기고한 글 중에 경제, 정치, 사회 등 어떤 대화에도 참여하여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예술에 대한 대화에 참여를 못해 혼란 적이 있었다고 회고한 글을 인상적으로 읽은 기억이 있다.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문화 민족이라고 자부해 왔다. 비단 음악뿐이 아니라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남들과의 대화에 동참할 수 있는 소양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독자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클래식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듣자.

듣고 또 들어 귀가 뚫릴 때까지. 그러면 반 정도는 도달한 거나 다름없을 테니까. 🎧

해빙기 안전에 유의하자



제73기상전대 중령 염영경

동에 적극 동참해야겠다.

또한 2월이 되면 강풍과 건조한 날이 이어지면서 각종 화재발생이 급증하게 된다. 행정자치부의 화재·통계연보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매년 화재발생이 1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월별로는 2월이 3,600회로 3월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2월부터 화재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여 3월에 최고조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실내에서는 물론 야외활동이나 사격훈련시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많은 눈이 내리고 추웠던 1월이 가고 해빙기에 접어드는 2월이 오면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2월에는 대륙성 고기압이 점차 약해지고 날씨 변화가 많은 것을 느끼게 된다. 평균 최저기온은 영하 4℃, 최고기온은 영상 6℃로 날이 갈수록 따뜻해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고기압이 점차 약해지면서 날씨 변화도 많아 돌변 악기상과 강풍, 난류 등이 자주 발생하여 항공작전 및 지상작전시 안전저해요소로 크게 작용하니 감독관들의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

올해는 UN이 정한 물의 해이다. 공기와 마찬가지로 물은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자원이다. 또한 UN은 세계적으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 그리고 인구증가에 의한 물 부족의 심각함을 경고하면서 물 절약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UN이 정한 물 부족국가인데다가 2월에는 평균 강수량이 36mm로 겨울 가뭄이 이어진다. 따라서 가뭄이 지속되고 물 부족 현상은 더욱 커지고 있으니 우리 모두는 절수운

절기로는 봄이 온다는 입춘이 4일이고 눈이 비로 바뀌면서 얼었던 땅이 녹고 따뜻한 봄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우수가 19일이다.

입춘이 되면 농가에서는 대문이나 집안 기둥에 '입춘대길(立春大吉)'을 써 붙이는 풍습이 있었다. 한해의 무사태평과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있다. 더불어 어둡고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었음을 자축하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의 마음도 봄을 기다리는 희망 속에서 한없이 조급해진다. 하지만 해빙기를 맞이하여 각종 안전사고 요인이 많은 만큼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여 명랑한 병영생활이 되도록 장병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기도 하다. ⚡



상식적인 사고(思考)

군수사령부 중령 이 면 우

끝없이 넓은 우주 공간과 무한의 과거에서 시작되어 무한한 미래로 흘러가는 유구한 시간을 응시하면서 지대한 세계에 우리 인간을 놓고 보면, 우리는 스스로 조그맣고 초라한 모습의 자신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 속에 던져진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떠한 존재이며 그 근원은 또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식을 택할 때 진정한 의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이러한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그리움을 키워갈 수 있는 청량제라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고에 의한 삶이 아닐까 생각한다.

상식이라 함은 '일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지극히 일반적인 지식, 이해력, 판단력'을 말한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고 자연 그대로인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

이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유발해 내는 그런 사고를 상식적 사고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그 어떠한 조직이나 사회에도 규범과 법칙과 질서가 있는 것이며, 그러한 것들이 아름답게 보존되고 지켜져 나갈 수 있는 원천은 바로 상식적인 생각에 의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어우러질 때만 가능한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의 저변에는 상식적이지 못하고 양심적이지 못한 온갖 종류의 양태들이 저질러지고 있으며,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법과 질서가 무시되는 말 그대로의 무법천지의 인간 군상들을 종종 만날 수 있다.

어려서부터 귀가 아프도록 듣고 배운 바 있는 격언이 새삼 낯설어짐은 나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봄에 부끄러움 때문인가? 옛말에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라고 했거늘 우리들은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은 왜 그렇게 많이 하려 드는지, 그것도 좋은 말이 아닌 험뜯고 닷하는 말들만 골라가며 하려 든다.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자신을 망치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어리석게도 수레바퀴 돌 듯이 반복하고 있으니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상식적인 생각은 양심적인 행동을 하게 한다. 나 혼자만 이롭고자 하는 것은 결코 상식적인 것이 될 수 없다. 나 자신과 내가 속해 있는 조직과 사회가 모두 이롭게 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이러한 상식적인 사고와 양심적인 행동이 늘어날 때 기본과 원칙이 중시되고, 가치관이 바로 서게 되며, 향기로운 사람들이 살아갈 만한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

의사과학/정신과학

인터넷서퍼 이 수 영 sy_lee@cultizen.co.kr

도심 한복판에서 길을 걷다가 간혹 “기나도에 관심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을 받는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도 많이 당해본 터라 그냥 무시하면서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우리들이 실제로 기, 수맥, 점술, 초능력 같은 소위 비과학적인 현상들을 무시하면서 지극히 과학적으로 살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진지한 믿음어든 심각하지 않은 취미든 간에 이런 ‘현대판 미신’ 혹은 ‘정신과학’은 우리 일상에 깊이 뿌리내려져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심지어 과학자들 내부에서도 정신과학에 대한 연구는 꽤 넓은 지지를 끌어내고 있는 듯하다.

우선 한국정신과학회(www.kjss.org)를 보자. 놀랍게도 공존하기 어려운 듯 보이는 두 분야의 인사들을 함께 모여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공, 의학 계열의 대학교수들과 기공수련원 대표가 함께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한 쪽에는 기와 운세 전문 검색엔진(www.kiun.net)의 배너가 달려 있다.

한편 이에 비판적인 과학자들이 있어 오래 전부터 과학계, 특히 저널리즘 과학의 중요 이슈가 되어 왔다. 이들은 스스로를 합리적인 이성파 과학을 신뢰하는 ‘회의주의자(Skeptics)’라고 하면서, 정신과학, 초과학, 신



과학 등의 긍정적 용어 대신 ‘의사’ 과학, ‘사이비’ 과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회의주의자들은 오컬트, 전생 기억, 외계 접촉, 7대 불가사의, 명상, 기, 기적, 피라미드 등 의사과학의 거짓말(?)을 과학적 연구와 실험을 통해 밝혀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의사과학 관련 사이트들에 비하면, 회의주의자의 사이트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열세이다. 한국의사과학문제연구소(kopsa.or.kr)와 회의주의자 사이트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웬지 모르게 의사과학에 동조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합리주의자의도(rathinker.co.kr)가 존재할 뿐이다.

첨단을 달리고 있는 과학의 시대에도 과학을 벗어난 어떤 것의 유혹은 상당한 매력인 듯하다. 그래도 이 두 회의주의 사이트를 방문해보면, 이것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볼 기회도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 ⊕

이달의 호국인물

고길훈(高吉勳) 해병대 소장



1922년 7월 함경남도 영흥 출생. 고길훈 소장은 해병대 창설 당시 제1중대장으로서 해병대 창설에 기여했으며, 진주와 제주도의 공비 토벌작전에 참가하여 공훈을 세우던 중 6·25전쟁을 맞았다. 고길훈 부대는 1950년 7월 16일 군산에 상륙하여 해병대 최초의 전투인 장항·군산·이리지구 전투에 참가, 북한군의 금강 진출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며 지연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후 고길훈 소장은 해병대 제1연대 1대대장으로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하여 서울탈환 작전시 행주에서 한강을 도하, 연희고지 전선에서 한국군 최초의 선봉부대로 진격했다. 이 때 북한군의 서울사수 최후 방어선인 104고지에서 강력히 저항하는 적을 치열한 백병전 끝에 섬멸하여 전투의지를 꺾고 중앙청까지 진격함으로써 수도서울 탈환작전 성공에 결정적인 공훈을 세웠다. 을지, 충무, 화랑 훈장이 수여되었고, 1990년 전남 군산시 월명공원에 고길훈 부대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해병대 장항·군산·이리지구 전적비'가 건립되었다.

이달의 문화인물

양주동(梁柱東)



호 무애(無涯). 경기도 개성 출생. 1928년 일본 와세다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였으며, 그 해 평양 숭실전문학교 교수에 취임하고, 1929년 <문예공론>을 발간하였고, 1940년 경신중학교 교사로 취임했다. 이 후 동국대학교 교수와 동 대학원장을 역임하였다. 또 1954년 대한민국학술원 종신회원에 선임되었다. 대한민국학술원상을 수상하고, 문화훈장·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되었다. 신라 향가 등 한국 고가(古歌)를 연구하여 초기 국어학계에 큰 업적을 남겼다. <조선고가연구>, <여요전주>, <국학연구논고>, <국문학교전독본> 등 수많은 저서를 남겼으며, <T.S.엘리엇 전집>, <영시백선(英詩百選)>, <세계기문선(世界奇文選)> 등 많은 번역집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달의 독립인물

김중건(金中建)

본관 경주(慶州). 호 소래(笑來)·불폐(不吠). 도호(道號) 마루진·원백(元伯). 1889년 함경남도 영흥 출생. 고향의 서당에서 한학을 배워 11세 때 이미 천재라 불렸다. 1914년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한편, 도학에 관한 많은 저술활동을 하였다.

1916년 안도현(安圖縣)에 도전학원(道田學院)을 설립하였으며, 1917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일본경찰에 검거되었다가 이듬해 가석방된 후 여러 곳에 학원을 설립하여 혁명이 양성에 노력하였다. 여러 차례 옥고를 치르면서도, 원종총사, 중우회, 농우동맹 등을 조직, 항일투쟁을 벌이던 중 1933년 조선공산군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문집으로 <소래집>이 있으며, '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클라우제비츠 사상의 현대적 함의

국방대학교 소령 최재혁

프러시아의 장군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Karl von Clausewitz, 1780~1831)는 전쟁에 대하여 포괄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한 군인이었다. 그는 전쟁의 본질을 철학적 차원과 현실 정치적 관점에서 정의하였다. 그는 그의 저서 <전쟁론>에서 '전쟁이란 다른 수단으로 인한 정치의 연속(War is merely a continuation of politics by other means)'이라는 기본 관점을 토대로 전쟁의 본질을 정의하고 있다.

특히 그는 전쟁이란 무엇이고, 전쟁에서 무엇이 고찰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전쟁이라는 어두운 안개 속에서 진리와 신념을 갈망하는 후세의 독자 - 군사지도자, 정치가 - 를 위해 한 줄기 빛을 제공하고 있다.

전쟁이란 무엇인가?

그는 전쟁의 본질은 폭력이며, 적개심 때문에 싸울 의지가 견지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무절제한 폭력이 아닌 정치적 목적, 동기에 의해 행해지는 살아 있는 두 의지간의 충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의 무제한적인 폭력성은 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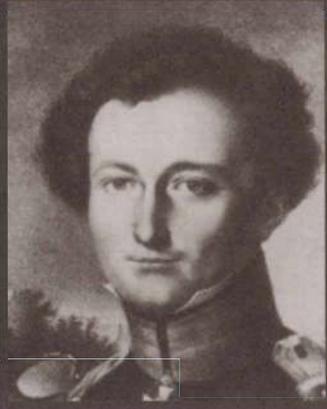
적 목적에 부합되게 이성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는 전쟁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인간적 요소라고 생각하였다. 즉, 그는 자신이 참전했던 전쟁과 그 이전의 전쟁을 연구하면서 전쟁의 예측불가능성, 불확실성, 우연성을 인식하였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적 요소, 즉 지성과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 중에서 지성은 천재적 해안이며, 용기는 책임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대 정보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의 생활양식과 사고의 틀을 바꾸어 놓고 있다. 아울러 전쟁에 있어서도 비선형적인 수행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즉, 실시간으로 유입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제 및 판단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일회성의 특성을 지닌 정보와 기술은 사고의 틀을 신속히 변화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쟁 상황은 더욱 복잡화되고 있으며, 예측 불가능하게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전쟁은 창의적인 사고력과

현대 전쟁 상황은 더욱 복잡화되고 있으며,
예측 불가능하게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불확실한 전장에서 다양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문제의 본질을 일견에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확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과감한 결단력을 갖춘 군사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대의 전쟁은, 불확실한 전장에서 다양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문제의 본질을 일견에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정확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창의적인 사고력 과감한 결단력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즉 클라우제비츠가 강조한 '지성'과 '과감한 결단'은 어떻게 체득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에 체득하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 선배들이 싸웠던 전쟁기록을 읽고, 스스로를 몰입시켜 숙고해 보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은 빠른 방법이 될 것이다. 과거는 현재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근본이다.

클라우제비츠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 들여다본 나폴레옹도 "역사적으로 유명한 장군들의 전역작전 전례를 읽고 또 읽어라. 이것은 군사적 천재로서 위대한 장군이 되는, 그리고 전쟁술의 비밀을

알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전쟁사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과거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근본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순전히 지성의 영역'이라고 결론지었다. 군사적 천재가 되게 하는 것도 지성이요, 용기를 제공하는 원천도 지성이며, 전쟁을 통제하는 것도 지성이라는 것이다.

군인에게 있어 지성은 부단한 자기 절제하에 전쟁사를 연구하고, 다양한 학문적 경험을 습득함으로써 함양될 수 있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지니게 될 수 있는 것이다.

200년 전인 19세기에, 21세기 전장환경과 상황을 예측하고, 전쟁의 본질을 설파한 클라우제비츠는 우리시대 군인들이 현재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연구해야만 하는 탁월한 스승이다. Ⓡ

세계 민항업계, 작년 가장 안전했던 한 해

세계 민간항공업계는 작년을 추락사고와 이로 인한 사망자 수가 평균치보다 훨씬 낮은 지난 수십년내 가장 안전했던 한 해로 꼽고 있다고 독일의 한 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네덜란드의 항공감시단체인 '항공안전네트워크(ASN)'의 발표를 인용해 작년 한해 총 37건의 항공기 추락사고가 발생, 승객과 승무원 1,098명이 사망하고 이들 추락사고로 지상에 있던 사람 78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ASN은 14명 이상을 탑승시킬 수 있는 세계 각 항공사들이 운영 중인 항공기를 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2002년이 1945년 2차 대전 종식 후 6번째로 사고가 적었던 해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972~2001년 사이의 평균 여객기 추락사고는 연간 50.7건에 사망 1,445명이었다

대한항공, 델타항공과 제휴 확대

대한항공과 델타항공과의 공동운항 방법이 최근 기존의 좌석 할당제에서 좌석자유판매제(FCS) 방식으로 변경돼 시행되고 있다. 좌석자유판매제 공동운항은 코드제휴를 하는 양 항공사가 판매 좌석 수의 제한 없이 상대 항공사의 좌석을 예약, 판매할 수 있는 자유판매 방식이다. 이는 상대 항공사로부터 한정된 좌석을 할당받아 자사의 항공편명으로 판매하는 좌석 할당제보다 한차원 높은 최고 수준의 공동운항 방식이다. 대한항공은 델타항공과 협의해 미국 국내선 이용 구간을 현행 26개 노선에서 올 상반기중 50여 개, 연내 100여 개 노선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美 공항검색 대폭 강화

'음식이나 음료 등은 손가방으로 운반하고 가방 속의 책은 쌓지 말고 평평하게 늘어놓아라.' '금속이 부착된 신발은 제일 위쪽에 쌓아 재빨리 검사를 받아 위험물품으로 취급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국 항공검색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안전청(TSA)은 최근 더 강화되는 미국 공항검색을 비교적 용이하게 통과할 수 있는 요령 몇 가지를 제시했다. TSA는 2003년 1월부터 미국 429개 주요 공항을 드나드는, 물표가 부착된 수화물의 모든 내용물에 대해 의무검색이 시행되며 각 내용물은 폭발물 검사를 위해 전자 스크린으로 검색한다. 매년 10억 개 이상의 수화물이 미국 공항을 드나드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새로운 검색방법에 따라 최고 10%까지 수작업으로 검사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라매회 '공군전우회'로 확대 개편

공군 전역장교를 대상으로 지난 '68년 5월 조직된 '보라매회'가 최근 전역장교뿐만 아니라 공군에서 전역한 부사관, 병, 그리고 퇴직 군무원까지 함께하는 '공군전우회'로 확대 발족하였습니다. 현재 전역군인을 대상으로 한 단체들은 다양하게 조직되어 있지만 육·해·공군 가운데 장교와 사병 전체를 포괄한 전우회가 발족한 것은 이번이 처음.

공군전우회는 이번 확대 발족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에 입각한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하는 공군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문의 : 02)825-84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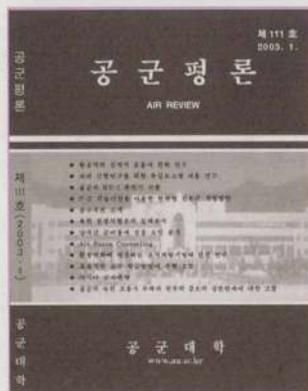


공군전우회 회장 김상태

공군평론 원고 모집

공군대학에서 발행하는 공군평론이 제112호 원고를 모집합니다. 원고 내용은 국방/공군정책, 군사전략·항공전략(우주전략) 및 교리, 군사정세 및 국제정세에 관한 것이며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창작물 또는 번역물이어야 합니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A4용지 30매) 이내이며 원고마감은 2월 28일입니다. 국가안보의 확립과 공군력의 발전은 창의적이며 성실한 연구에 의한 탄탄한 군사이론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군력 발전을 위한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문의 : 자)4214, 042)870-4214



환경 우수작품 공모

공군본부는 장병 및 군무원의 환경보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요성을 인식·홍보하기 위한 환경 우수작품을 공모합니다. 표어·포스터·사진·만화의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치러지는 이번 공모전은 부대별 예선(2~3월)과 공군본부 본선(5~6월)으로 구분, 시행되며 선발작품은 6월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전시됩니다. 이번 공모전에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효)4676



이달의 문제

지난호 정답/게미년

1		2				3		②	4
		5	6						
						7	8		
							9		①
10③		11		12⑤					
13							14		15
						16④			
						17			
18									
19									

계①	순	회					근	하	신	년③
산		소	쿠	리						사
기	차			어						임
	용		자	카	르	타			당	구
	증		전			이				사
선	서		겨	미②		어				일
구				추					중	생
자	두			훈	인	원			성	
	루						두		자	석
	미	역	국				막			간

▶ 가로열쇠

- 아디다스컵 테니스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우리나라 대표 테니스 선수
- 모양이 오목하여 빛을 발산하는 작용을 하는 렌즈
- 나쁜 짓을 하고선 ○○○를 딱 댄다.
- 바둑을 둘 수 있는 장소
- 홍콩영화의 전설적인 인물. 영웅본색, 와호장룡 등등
- 새알 중에서 가장 큰 알. 텔런트 김영준의 별명
- 학생들이 방학 때 자신들의 용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
- 몸매가 참 ○○○ 같군! 뭐야?
- 머리는 웅인데 꼬리는 뱀. 처음은 좋으나 끝이 좋지 않은 것을 일컫는 말
- 절대반지. 이것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힘을 얻게 된다.
- 참쌀을 찐 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고물을 묻힌 떡

▶ 세로열쇠

- 돈을 받고 이삿짐을 집까지 옮겨주는 업체
- 대중교통수단 중에서 가장 편한 것. 하지만 요금이 좀 비싸지요
- 넘어뜨리려 해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것
- '1000'의 순수 우리말
- 대뇌 신경세포의 손상 등으로 지능이나 기억 등이 손상된 상태
- 원의 둘레를 구할 때 꼭 필요한 것. 3.141592...
- "저는 그 시간에 집에 있었어요."
- 연인들이 만나는 것. "자기야, 우리 오늘 ○○○ 하자."
- 우리 나라에는 이것이 없지요. 무한질주
- 견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게 아름다운 여자
- 은행에 저금을 할 때 가져가는 것.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 전자공학시간에 납땀하기 위하여 쓰는 것. 앓 뜨거!
- 바다의 왕. 거북이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토끼의 간을 구하러 갔지요.

①②③④⑤⑥에 들어갈 낱말을 독자엽서에 적어 2월 22일까지 보내 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열 분을 추첨하여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퀴즈로! 퍼즐로! 당첨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이순주
경북 상주시 화서면 봉촌리 김선숙
부산시 남구 대연4동 김임순
대전시 서구 복수동 신광수
서울시 노원구 공릉1동 윤인수

대구시 달서구 상당1동 노재영
충북 진천군 진천읍 조미정
경남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사서함 3호 상병 김영철
충남 논산시 두마면 사서함 501-318 상병 신현우
충북 충주시 금가면 사서함 383-13 병장 정재욱

뮤지컬 캣츠 내한 공연



전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뮤지컬, '캣츠'의 감동이 한국을 찾아왔다. 브로드웨이에 새 역사를 기록한 '캣츠'는 영국 시인 T.S. 엘리엇의 시집 '지혜로운 고양이들이 되기 위한 지침서'를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각기 다른 성격과 개성을 지닌 고양이들의 모임을 뮤지컬로 만든 것이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연출가 트레버넌과 앤드루 로이드 웨버. 그들이 손을 잡고 1981년 런던 웨스트 엔드에서 첫선을 보인 이후 영국 뮤지컬의 새로운 전성기를 연 '캣츠'. 환상적인 무대 매커니즘과 진짜 고양이 뿔칠 정도로 그럴듯한 분장과 의상을 입은 배우들, 거기에 춤과 노래, 연기 등 뮤지컬의 세 요소를 골고루 보여주는 배우들의 빼어난 몸놀림이 시종일관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공연기간 : 2003년 3월 2일까지
장 소 :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문 의 : 02)580-1114

『삼국지 영웅전』

명나라 시대의 작가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삼국시대가 3월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본관에서 『삼국지 영웅전』으로 펼쳐진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

되는 금번 전시는 삼국지의 메카이며, 제갈량에 의해 이미 2000년 전에 계획된 촉나라의 고도 사천성 성도시 정부와 삼국지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단량샤오 관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아래 실시되고 있다. 사실에 바탕을 둔 삼국지에 관련한 모든 것을 총망라한 전시로 전시 관람 후에는 마치 삼국지를 다 읽은 듯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문의 : 02)755-7345

「근대 미술의 산책」전 개최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한국의 주요 근대 작품으로 구성된 「근대 미술의 산책」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 전시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기획되었다. 제1부 수묵·채색화 부문에서는 근대 수묵·채색화가 걸어 온 길을 '관념, 현실, 그리고 표현'이라는 주제로 3월 30일까지 덕수궁미술관 제1, 2전시실에서, 제2부는 유화·수채화 부문으로 '근대성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2003년 5월 11일까지 덕수궁 미술관 제3, 4전시실에서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수준 높은 근대 작품들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이들 작품이 한국 근대미술사의 흐름 속에서 차지하는 지점을 제시하고 있다.

전시된 작품을 따라 근대미술사의 흐름을 더듬어 보게 되는 관람객들은 근대 미술로의 '산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문의 : 02)779-5310

